

## 제삼편<sup>1)</sup>

### 이와 같이, 내겐, 들렸다, 한 때(총설)

이제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sup>2)</sup>"라는 표현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보련다.<sup>3)</sup>

[이와 같이 내겐 들렸다-붓다의 말]

물음: 부처들은 전지하다. 의존치 않고, 스승도 없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외인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차용한 체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이로부터 들은 말을 빌어 법칙을 설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들은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66 b] 답: 당신 말대로 붓다는 전지하고, 의존치 않으며 스승도 없어, 다른 이로부터 들은 말을 빌어 설법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붓다의 입<sup>4)</sup>으로부터 나온 설법만이 아니라 세간의 모든 진실과 선한 말<sup>5)</sup> 모두가 붓다의 법칙이다.<sup>6)</sup> 미묘한 말,<sup>7)</sup> 선한 말은 모두 붓다의 법칙으

1) 「大智度初品總說如是我聞釋論」‘第三’(卷第二): 『고려대장경』(麗本)의 표기는 大智度初品總說如是我聞釋論‘第二’卷第二’로 되어 있어 『신수대장경』에 표기된 ‘第三’은 麗本 ‘第二’의 오기이다.

2) ‘一時’: 고려대장경(麗本)에는 없는 구절.

3) 폴 드미에빌이 이 경구에 관해 여러 다른 주석들을 특기하였다. *Les versions chinoises du Milindapañha*, BEFEO, XXIV, 1924, p. 52~57.

4) la bouche du Buddha, the mouth of the Buddha, *buddhakanthokt*, 佛口

5) les paroles bien dites, the good words, *subhāsita*, 善語

6) 정통성의 기준은 불교학자들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에 관한 문제를 루이 드 라발레 푸생이 제기하였다: L. de La Vallée Poussin, *Opinions*, p. 138~145; *Nirvāṇa*, p. 24.

a. 정통성에 관한 전통적 관점은 신앙심 깊은 아쇼카의 바이라트 칙령의 관점이다(Senart, *Piyadasi*, II, p. 208; Hultsch, *Aśoka*, p. 173; Smith, *Aśoka*, p. 172): “지복한 붓다가 말한 모든 것은 옳게 설해졌다.”(*e kechi bhante bhagavatā Budhena bhāsīte sarve se subhāsīte*).

그러므로 교의나 경전의 붓다의 말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전 번역자는 경전들 가운데 오직 권위 있는 경전 장서와의 비교가 필수임을 주장한다.

*Dīgha*, II, p. 123 그리고 *Aṅguttara*, II, p. 167에서 발견된 위대한 네 권위(大說, *mahāpadeśa*)에 할애된 빠알리 경전은 경장과 율장에 일치하는 모든 글을 붓다의 말로 간주한다: “어떤 글이 붓다, 상가, 장로(*thera*) 모임 혹은 장로 개인과 관련해서 제시되는 경우, 이 글(*padavyaṅṅānā*)이 경(*le Sūtra*, *sutte otaranti*)과 율(*Vinaya*, *vinaye sandissanti*)에 나타나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불설(*bhagavato vacanam*)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되어야 한다.

대설(*mahāpadesa*)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Dīgha*, tr. Rh. D., II, p. 123; tr. Franke, p. 220, n. 4; *Aṅguttara*, tr. Woodward, II, p. 174; L. de La Vallée Poussin, *Mahāpadeśa*, *Kālāpadeśa*, HJAS, III, 1038, p. 158~160을 볼 것.

같은 내용이지만 형태 면에서 좀 더 세분된 구절을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글은 경장과 율장에 담겨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상의 성격(혹은 진실)과 대치되지 말아야 한다. 이로 인한 변형된 관용적 표현이 한역 장아함(*Chinese Dīrghāgama*)에 보인다(T 1, k. 3, p.17 c. (cf. T 5, k. 1. p.167 a; T 6, k. 1, p. 182 c; T 7, k. 1, p. 195 c; *Ken pen chouo... tsa che*, T 1451, k. 37, p. 389 b-390 b). 이 구절은 『大乘莊嚴經論(*Sūtrālamkāra*)』(ed. S. Lévi 1983, p. 4)에 인용되어 있다: 붓다가 한 말의 특성은 그것이 경장과 율장에 나타나며 진실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uddhavacanasyedaṃ laṣaṇaṃ yat sūtre ‘vatarati vinaye saṃdrśyate dharmatām ca na vilomayati*).

동일 원칙이 세소(細疏)에도 적용된다(*Pañjikā*, p. 431): “스승과 제자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붓다의 말, 경장에 나타난 것, 율장에 나타나 진실(*dharmatā*)과 대치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붓다의 말이고, 그 외의 것은 붓다의 말이 아니다.”(*yad guruśiṣyaparaṃparayāmnāyāyātāṃ buddhavacanatvena yacca sūtre ‘vatarati vinaye*

로부터 유래한다. 붓다는 비나야<sup>8)</sup>에서 이렇게 말했다: 붓다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설한 것이다. 1. 붓다 스스로의 말<sup>9)</sup>, 2. 붓다의 제자들의 말<sup>10)</sup>, 3. 현인들의 말<sup>11)</sup>, 4. 신들의 말<sup>12)</sup>, 5. 화인의 말<sup>13)</sup>. — 또한 『석제환인득도경』<sup>14)</sup>에서 𑖀시까<sup>15)</sup>에게 말

*saṃdr̥śyate dharmātām ca na vilomayati tad buddhavacanam nānyat*) — *Kośa*, IX, p. 252에 의하면 경전과 대치될 수 없는 법성(*dharmatā*), 그것이 연기(*pratītyasamutpāda*)의 법칙이다.

『增壹阿含經(*Chinese Ekottara*)』에서는 요구 조항이 더 완화된다(*Tseng yi a han*, T 125, k. 20, p. 652 b). 이 경전의 경우 네 가지 정통성(*mahāpadśa*)은 수뜨라, 비나야, 아비다르마 그리고 실라(*les Défenses, śīla*)에 의한다.

b. 불교 문헌의 발전과 더불어 정통성의 기준은 그 권위를 상실한다.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의 결정은 점점 더 경전 내면적 가치에 따르게 된다. Mppś, k. 9, p. 125에 인용된, 빠알리 전통에서는 낯선 경전인 『四依(*catus-pratisaraṇa*)』의 경우 주석가들로 하여금 심지어 붓다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권위가 아닌 자체의 진실에 의거할 것을 명한다(*dharmāḥ pratisaraṇam na pudgalaḥ*). 이미 *Suttanipāta*, III, 3에는 흠잡을 수 없는 “善說(*subhāsita*)”임을 인정하게 하는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훌륭하게 설해진, 잘못 설해지지 않은 것; 해탈과 일치하며 해탈에 어긋나지 않는 것 (*dhammañ ñeva bhāsati no adhammaṃ*); 기쁜 것이며 불쾌하지 않은 것(*piyañ ñeva bhāsita no appiyaṃ*); 진실하며 거짓이 아닌 것(*saccañ ñeva bhāsati no alikaṃ*).”

c. 결국 정통성 기준은 완전히 포기된다. 경을 인정하기 위해 어디 어디에서 누구에게 설한 것인지 알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지 경에 담긴 교의가 유용하고 유익한지 묻기만 하면 된다. 이는 외적 비평에 대한 내적 비평, 객관성에 대한 주관성의 승리이다. “붓다가 설한 모든 것은 옳다.”라는 이전의 표현은 파기되고, 일반적으로 “옳게 설해진 것은 모두 붓다가 설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어지는 Mppś의 내용은 단호히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글에 의존한다. 다른 인용들의 예도 추가할 수 있다.

*Śikṣāsamuccaya*(『大乘集菩薩學論』)에서 인용한 *Madhyāśayasamcodanasūtra*, p. 15 및 *Pañjikā*, p. 431~432: “붓다의 말 모두는 네 가지 특성으로 인정된다: 붓다의 말은 해로움이 아닌 유익함을 갖추었다. 법칙에 일치하며 법칙과 대치되지 않는다. 붓다의 말은 번뇌를 파괴하되, 증장하지 않는다. 니르바나의 특성과 이익을 보여주며 윤회의 특성과 이익을 보여준다. 이 네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교의를 가르치거나 앞으로 가르칠 자는 누구나 불자, 고귀한 가문의 아들과 딸들에 의해 붓다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들은 교의를 설하는 자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 교의를 경청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옳게 말해진 모든 것이 붓다가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api tu, maitreya, caturbhiḥ kāraṇaiḥ pratibhainam sarvabuddhabhāṣitam veditavyam. katamais̄ caturbhiḥ. iha, maitreya, pratibhānam arthopasaṃhitam bhavati nāinarthopasaṃhitam, dharmopasaṃhitam bhavati nādharmopasaṃhitam, kleśaprāhāyakaṃ bhavati na kleśavivardhakaṃ, nirvāṇaguṇānuśamsasaṃdarśakaṃ bhavati na saṃsāraguṇānuśamsasaṃdarśakaṃ...yasya kasyacin, maitreya, etais̄ caturbhiḥ pratibhānam praiibhāti pratibhāsyati vā, tatra śrāddhaiḥ kulaputraiḥ kuladuhitṛbhir vā buddhasaṃjñōtpādayitavyā ; śāstrāṃjñāṃ kṛtvā sa dharmāḥ śrotavyaḥ. tatkasya hetoḥ. yat kiṃein, maitreya, subhāṣitam sarvaṃ tat buddhabhāṣitam*)

d. 대승의 그 많은 경전으로 불교 문헌들이 범람하자 소승 지지자들은 “이 경전들은 정통이 아니다. 붓다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했다. 대승 논사들이 이에 항변하는 길은 단지 논리적 주장 뿐이리라. 그들은 말한다. “대승은 구경각으로 이끈다. 이런 이유로 대승경전들이 붓다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모든 변론은 궁극적으로 이 단순한 증언으로 귀결된다(*Mahāyānasamgraha*, p. 9; *Sūtrālaṃkāra*, I, v. 7, p. 3; *Siddhi*, p. 176~178; *Hien yang cheng kiao louen*, T 1602, k. 20, p. 581 b; Dutt, *Mahāyāna*, p. 68~75).

7) les paroles adroite, the skillful words, *nīpuṇa*, 微妙好語

8) le Vinaya, the Vinaya, 毘尼

9) ce que le Buddha a dit, that which the Buddha himself has spoken, *buddhabhāṣita*, 佛自口說

10) ce que les disciples du Buddha ont énoncé, which the disciples of the Buddha have spoken, *śrāvakabhāṣita*, 佛弟子說

11) Ce que les sages ont énoncé, which the sages have said, *ṛṣibhāṣita*, 仙人說

12) Ce les dieux ont énoncé, which has been said by the gods, *devabhāṣita*, 諸天說

13) Ce que les êtres apparitionnels ont énoncé, which apparitional beings have spoken, *upapādukabhāṣita*, 化人說.

說一切有部 비나야(*Sarvāstivādin Vinaya*) *Che song liu*, T 1435, K. 9, p. 71 b 1~2에서 인용한 문단. Mppś에서 율장을 언급하는 경우, 항상 축자역 방식을 사용한다. 이 두 저술을 꾸마라지바가

하길, “세간의 진실하고, 선한 말, 미묘하고 좋은 말은 모두 나의 법칙으로부터 유래한다.”<sup>16)</sup> 그래서 「찬불계」<sup>17)</sup>에 이르길,

어느 세간이나 선한 말은  
모두 붓다의 법칙으로부터 유래하네.  
이 선한 말엔 결점이 없어,  
붓다의 말과 다르지 않다네.

비록 다른 곳에 있다 해도,  
선하고 결점이 없어,  
이 말들 모두가  
붓다의 법칙들의 단편들이라네.

외도들 모두에게도  
좋은 말이 있을 수 있다네.  
나무를 파먹는 벌레가  
우연히 [그 파먹는 나무] 이름을 새기듯.

처음 법칙, 중간 법칙, 마지막 법칙,

---

번역하였으며 그의 번역으로만 전한다.

인용한 구절은 다른 울장들과도 상응한다: *Pāli Vinaya*, IV, p. 15: *dhmmo nāma buddhabhāsito sāvakabhāsito isibhāsito devatābhāsito atthupasaṃhito dhammupasaṃhito*. – *Mahāsaṃghika Vinaya, Mo ho seng k'i liu*, T 1425, k. 13, p. 336 a 21: “붓다의 가르침이란 붓다가 설했거나 붓다가 인정하거나 인가한 것이다. 붓다가 인정하거나 인가한 것은 그의 제자 스라바까들 그리고 붓다의 법칙을 설한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붓다는 그것을 인가하였다.” – *Dharmagupta Vinaya, Sseu fen liu*, T 1428, k. 11, p. 639 a 16: “법구(法句)는 붓다가 설한 것, 스라바까들이 표현한 것 그리고 현자(ṛṣis)들이 표현한 것, 천인들이 표현한 것이다.” 이 구절은 빠알리 경전과 일치한다. – *Mūlasarvāstivādin Vinaya, Ken pen chou...p'i nai ye*, T 1332, k. 26, p. 771 b 22: “‘법칙’이란 말은 붓다와 스라바까들이 설한 것을 의미한다.” – *Nandimitra's Relation*(難提蜜多羅의 관계)에서 보디사뜨와들(*bodhisattva*)은 붓다의 법칙 정의에 관여하고 있다.: 성스러운 붓다의 법칙 장서에는 붓다가 설한 것, 보디사뜨와들이 설한 것, 스라바까들이 설한 것, 현자들이 설한 것, 천신들이 설한 것, 현인이 설한 것들이 있다. 이들은 공평함과 이로움을 고취한다. Cf. S. Lévi, *Les seize Arhat protecteurs de la loi*, JA, 1916, p. 20~21.

14) *le Che t'i houan y in tō tao king, Śakradevadrābhisambodhisūtra*, 『釋提桓因得道經』

15) *Kiao che kia*, Kauśika, 憍尸迦(교시가). 교시가(빠알리 Kosiya)는 인드라(Indra, 빠알리 Śakra)를 수식하는 부가형용사이며 실제로는 매우 드물게 쓰인다. 이미 *Rgveda*(I, 10)와 *Mahābhārata* (3, 9,9 와 135,20)에 보인다. Macdonell, *Vedic Mythology*, p. 62 그리고 W. Hopkins, *Epic Mythology*, p. 123을 볼 것. – 불경들에도 등장한다: *Digha*, II, p. 270; *Majjhima*, I, p. 200, 202, 315, 403. 이 형용사는 “쿠시카 가문(Kuśika family)에 속함”을 의미하며, 인드라가 쿠시카 족의 신이었을 때부터 지속된 것이라고 Rhys Davids는 밝히고 있다(*Digha*, tr. II, p. 296).

16) 나는 이 구절의 출전을 밝히지 못하였다. 하지만 *Anguttara*, IV, p. 163~164 d의 인드라와 빅슈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빅슈가 “잘 말해진 것은 모두 붓다에 의해 설해진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이 구절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인드라가 승려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훌륭한 교의로군. 이것은 그대 스스로 깨달은 것인가 아니면 붓다로부터 취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승려들이 답한다. “커다란 곳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옷을 차려입고 손에 든 바구니에 곡식을 담고 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 곡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소; 이와 같이 잘 말해진 것, 모든 좋은 말은 지복한 자의 말이라오”(Yaṃ kiṃci subhāsitaṃ sabbam taṃ Bhagavato vacanaṃ).

17) *Tsan fa kie, Buddhastotragātha*, 讚佛偈

개별 혹은 공동의 특성을 깨트림,  
이는 맥석으로부터 금이 나오는 이치와 같도다.

에란다<sup>18)</sup> 숲 속에  
전단향료<sup>19)</sup>가 들어 있음을  
누가 믿으리오?

나쁜 씨 속에  
달고 선하고 아름다운 과일이 있음을  
누가 믿으리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외도의 경전 자체에도  
좋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네.

좋고 진실한 말은 모두  
붓다로부터 유래하니,  
마치 전단향이  
마리산<sup>20)</sup>으로부터 유래하는 것과 같네.

마리산을 없애면,  
전단도 없어지니.  
이와 같이 붓다를 없애보라,  
좋은 말조차 사라져버리리.

[이와 같이 내겐 들렸다-제자의 말]

2. 또한<sup>21)</sup>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라는 문장은 아난다 등 붓다의 큰 제자들이 사용한 표현이다. 이 표현은 붓다의 법칙의 특성으로 회향하기에 붓다의 법칙이라 불린다. 이렇듯 붓

---

18) Eranda, 伊蘭 모니에-윌리암스에 의하면, 피마자(蓖麻子, castor-oil plant, *Ricinus communis* or *Croton polyandron* 혹은 *Palma Christi*(영역 주석).

19) le gosira, the goṣhira, *goṣira*, 牛頭梅檀. 모니에-윌리암스에 의하면, 백단향 나무에서 채취하는 기름의 일종. 황동색으로 향기가 진해 향수의 원료로 사용 됨(영역 주석).

20) Mo li chan, 摩梨山.

*Mo li chan*은 *Mo lo chan*(Przyluski, *Concile*, p. 207) 및 *Mo lo ye chan*(S. Lévi, *Catalogue géographique des Yakṣa*, JA, Jan.-Feb., 1915, p. 41)으로도 표기되며 전단향(*goṣira candana*)이 우거진 말라야 산(Mount Malaya)과 거의 일치한다. 아래 k. 10, p. 132 a를 볼 것.

21) 붓다가 빠르니르바나에 들기 전에 설한 최후 법문(*ultima verba*)과 관련된 구절. 아니룻다(Aniruddha)의 청에 따라 아난다가 임종하는 붓다에게 다섯 가지를 묻자 붓다가 다섯 충고로 답한다. 나[라모트]는 딱 한 번 등장하는 아니룻다가 아난다에게 붓다가 멸진정(滅盡定, *nirodhasamāpatti*)에 들었는지 묻는 다른 빠르니르바나 이야기들에서 이 에피소드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Cf. *Dīgha*, II, p. 156; *Tch'ang a han*, T 1, k. 4, p. 26 b 28; *Pan ni yuan king*, T 6, k. 2, p. 188 b 26; *Ta pan nie p'an king*, T 7, k. 2, p. 205 a 10; *Ken pen chouo... tsaa che*, T 1451, k. 38, p. 309 b 6 참조.

다는 빠르니르바나<sup>22)</sup>에 드는 순간 쿠시나가라국<sup>23)</sup>의 사라쌍수<sup>24)</sup> 사이에 있었다. 머리를 북쪽으로 향해 누운 붓다는 이제 니르바나에 들려던 참이었다. 이때 아난다는 차마 일가 친속의 정을 끊지 못하여 슬픈 감정을 떨치지 못한 채 근심의 바다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장로 아니룻다<sup>25)</sup>가 아난다에게 말했다: “그대는 붓다의 법장<sup>26)</sup>을 수호해야 하오. 속인처럼 슬픔의 바다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오. 모든 조건적 존재들<sup>27)</sup>은 무상하기 마련이니 슬픔을 멈추시오. 더욱이 붓다가 그대에게 법칙을 맡긴 지금 슬픔에 빠지면 그대의 과업을 간과하는 것이 되오. 그러니 붓다에게 다음과 같이 여쭙시오. 붓다가 빠르니르바나에 들고 나면 어떤 길<sup>28)</sup>을 가야하고, 누가 우리의 스승<sup>29)</sup>이 될 것이며, [66 c] 누가 우리의 감시자<sup>30)</sup>가 되고 지도자<sup>31)</sup>가 될지, 그 어디를 안식처<sup>32)</sup>로 삼게 될지 말시오, 불경의 첫 말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앞으로 일어날 일<sup>33)</sup> 모두에 관해 붓다에게 물어야 하오.”

이 말을 듣고 아난다는 그 슬픔을 삭이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여력을 얻었다. 아난다는 마지막 붓다의 잠자리를 챙겨드리고 이에 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붓다에게 물었다.

붓다는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이제 내가 가고 나면 그대 자신이 그대의 의지처이며,<sup>34)</sup> 법칙이 곧 그대의 의지처<sup>35)</sup>가 되리니 다른 의지처는 없으리라. 오 빅슈여!<sup>36)</sup> 그대 자신에 의지하라. 어찌해서 법칙이 그대의 의지처이며, 다른 곳을 의지처로 삼으면 안 되는가? 빅슈는 자신의 몸을 주시해야 한다.<sup>37)</sup> 빅슈는 당연히 한 마음으로 지혜를 닦고 부지런히 수련하고 정진하여 ‘세간의 탐욕과 이로부터 유래하는 근심’<sup>38)</sup>을 버려야 한다. 빅슈는 자신의 몸과 남의 몸을 이와 같이 주시한다. 감각<sup>39)</sup>과 마음<sup>40)</sup>과 마음 대상들<sup>41)</sup>에 관한 전념 수행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빅슈 자신이 곧 자신의 의지처이며, 의지를 위한 법칙을 지닐 것이니, 이외에 다른 의지처는 없다.<sup>42)</sup> 이제는 『해탈계경』이<sup>43)</sup> 너의 큰 스승<sup>44)</sup>이다. 행동과

22) le Parnirvāna, 般涅槃(圓寂)

23) Kiu yi na kie, Kuśinagara, 俱夷那竭國

24) deux arbres Sa lo, two Sa lo(*śāla*) trees, 薩羅雙樹

25) le sthavira A ni lou teou, the sthavira A ni lou teou(Aniruddha). 長老阿泥盧豆

26) le corbeille des textes bouddhiques, the basket of the Buddhist texts, *bouddhadharmapitaka*, 法藏,

27) les Dharma conditionnés, the conditioned dharmas, *saṃskṛtadharma*, 有爲法

28) le chemin, the path, *mārga*, 道

29) le maître, the teacher, *ācārya*, 師

30) le censeur, the critic, 惡口

31) le conducteur, the guide, *chaṇḍaka*, 車匿

32) notre retraite, our refuge, *uposatha*, 共住

33) ces choses à venir, these things to come, *anāgatavastu*, 未來事

34) votre refuge, your own refuge, *ātmaśaraṇa*, 依止

35) la loi sera votre refuge, the Dharma will be your own refuge, *dharmaśaraṇa*, 法依止

36) *bhikṣu*, 比丘

37) Le bhikṣu considère son propre corps, The bhikṣu considers his own body, *kāyam anupaśyati*, 比丘內觀身

38) les convoitises du monde et la dissatisfaction qui en résulte, the worldly desires and resulting dissatisfactions, *loke 'bhidhyādaurmanasya*, 世間貪憂

39) la sensation, the feeling, *vedanā*, 受

40) la pensée, the mind *citta*, 心

41) des Dharmas, the dharmas, 法

42) 네 전념 수행(*smṛtyupasthāna*)에 관한 동일한 법문이 이미 벨루와(Beluva)에서 행해졌다(*Dīgha*, II, p. 100); *Tch'ang a han*, T 1, k. 2, p. 15 b; *Ken pen chou... tsa che*, T 1451, k. 30, p. 387 b) 및 *Sāvatti(Saṃyutta*, V, p.163) 그리고 마똘라(*Mātulā*) 빅슈에게 행해진 법문(*Dīgha*, III, p. 58, 77; *Tch'ang a han*, T 1 (n° 6), k. 6, p. 391; *Tchong a han*.

*Tasmāt ih' Ānanda attadipā viharatha attasaraṇā anaññasaraṇā, dhammadipā*

말을 이 경의 법칙에 따라 실천하라. 나의 니르바나 이후에는 비슈여, 브라흐마 법칙에<sup>45)</sup> 의 거한 징계<sup>46)</sup>가 그대의 안내자<sup>47)</sup>가 될 것이다. 만일 크게 감동한 자가 있다면 『산타가전연경』<sup>48)</sup>을 가르쳐라. 그러면 곧 도를 구하라. — 또한 세 아승지겁<sup>49)</sup> 동안 이루어진 귀중한 법

*dhammasaraṇā anartnasaraṇā. Kathaṅ c' Ānanda bhikkhu attadīpo viharati attasaraṇo anaññasaraṇo, dhammadīpo dhammasaraṇo anaññasaraṇo? bhikkhu kāye kāy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abhijjhādomanassaṃ. Vedanāsu vedan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 lokeabhijjhādomanassaṃ. Citte cittānupassī viharati ātāpī sampajāno satimā vineyyalokeabhijjhādomanassaṃ. evaṃ kho Ānanda bhikkhu attadīpo viharati attasaraṇo anaññasaraṇo, dhammadīpo dhammasaraṇo anaññasaraṇo.*

TTr. 아난다여, 그러므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되 이이의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아난다여, 그러면 어떻게 비슈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지 않는가? 비슈는 몸에 대해 몸을 따라 관찰하며 머문다. 열성적으로 알아차린 상태에서 마음을 챙기며, 세간에 관련한 탐욕과 고뇌를 벗어나 [머문다.] 감각에 대해 느낌을 따라 관찰하며 머문다. 열성적으로 알아차린 상태에서 마음을 챙기며, 세간에 관련한 갈망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마음에 대해 마음을 따라 관찰하며 머문다. 열성적으로 알아차린 상태에서 마음을 챙기며, 세간에 관련한 갈망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슈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칙을 섬으로 삼고 법칙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고 그 이외 것을 의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43) *Kiai t'o Mai king*, Prātimokṣasūtra, 解脫戒經

44) votre grand maître, your great teacher, *mahācārya*, 大師

45) la loi de Brahma, the rule of Brahmā, *brahmadāṇḍa*, 梵法.

브라흐마법은 붓다가 찬다에게 과한 징계이다: “찬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슈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하지만 비슈들이 찬다에게 말하거나, 훈계하거나, 충고하는 것은 금한다.”(*Dīgha*, II, p. 154; *Vinaya*, II, p. 290 참조: *Channo bhikkhu yaṃ icccheyya taṃ vadeyya, so bhikkhūhi n'eva vattabbo na ovaditabbo na anusāsītabbo*).

*Tch'ang a han*, T 1 (no. 1), k. 4, p. 26 a에도 같은 금지령을 언급하고 있다. 미사새부(化地部) 율장(*Mahīśāsaka Vinaya*), 『五分律(*Wou fen liu*)』, T 1421, k. 39, p. 102 a의 징계는 더욱 냉혹하다: “어느 비슈, 비슈니, 우바새, 우바이에게도 그와의 만남과 대화를 불허하노라.” — *Sammāpadaṭṭha*, II, p. 110~12 (Burlingame, *Legends*, II, p. 166)과 Rh. D., *Theragāthā*, tr: chap. LXIX도 볼 것. 미사새부 율장에서는 징계 수위가 더 엄해진다. 『五分律』, T. 1421, k. 30, p. 192 a. “모든 비슈, 비슈니, 우바새, 우바이의 그대와의 만남과 대화가 금지될 것이다. 一切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不得共 汝來往交言.” *Dhammapadaṭṭha*, II, p. 110~112 (Burlingame, *Legends*, II, p. 166)와 Rh. D., *Theragāthā*, ch. LXIX도 참고할 것)

46) le châtiment selon la loi de Brahmā, th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rule of Brahmā, 如梵法治

47) votre conducteur, your guide, *chaṇḍaka*. 라모트는 ‘如梵法治’를 풀이하여 프랑스어로 옮김.

48) *Samthakātyāyanasūtra*, 刪陀迦旃延經. 이 경에서 붓다는 내용이나 대상 없이 니르바나로 드는 길에 대비한 수승한 명상을 찬탄한다. 붓다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한 그 어떠한 생각도 남김없이 버린 삼타 까뜨냐아(*Samtha Kātyāyana*, 빠알리 *Sandha* 혹은 *Saddha Kaccāyana*)에게 축복을 내린다. *Anguttara*, V, p. 323; *Samyutta*, II, p. 153 참조. 그리고 신들은 “훌륭한 인간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에 그대를 경배하오.”라면서 삼타를 공경한다.

이 경의 중요한 이본들을 포함한 몇몇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빠알리본 *Anguttara*, V, p. 323~326; 산스크리트본, *Bodhisattvabhūmi*, p. 49~50의 인용; — 한역본 *Tsa a han*, T 99 (n° 926), k. 33, p. 235 c ~ 236 b, 그리고 T 100(n° 151), k. 8, p. 430 c ~ 431 b; *Yu kiu che ti louen*의 아상가(*Asaṅga*, 無着) 인용, T 1579, k. 36, p. 489 b, 그리고 브하바위웨까(*Bhāvaviveka*, 清辨)의 *Ta tch'eng tchang tchen louen* 인용, T 1578, k. 2, p. 276 c (tr. L. de La Vallée Poussin, *Le Joyau dans la main*, MCB, II, 1932~33, p. 127).

여기에 필자가 몇몇 괄호 속에 추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빠알리 판본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경의 산스크리트 구절을 소개한다:

*lha Samtha bhikṣur na pṛthivīm nisṛitya dhyāyati nāpaḥ na tejo na vāyum n'ākāśaviññānākimcanyanaivasamjñānāsamjñāyatanaṃ nemaṃ lokaṃ na paraṃ [nobhau sūryacandramasau] na dṛṣṭśrutamjñāyatanaṃ prāptam paryeṣitam manasā [anuvitarkitam] anuvicāritam. tat [sarvaṃ] na nisṛitya dhyāyati. katham dhyāyī. pṛthivīm na nisṛitya*

보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 한 때, 붓다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느 숲에 머물고 있었다.” 왜 그러한가? 과거의 모든 붓다들의 경우에도 경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으며, 미래의 모든 붓다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시작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모든 붓다들의 경우에도 빠르니르바나에 들 때면 마찬가지로 이 표현으로 가르쳤다. 이제 나의 빠르니르바나 이후에도 경은 이 표현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 한 때.”

이 점에서 경전의 내용을 붓다가 가르쳤으며, 붓다 자신이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라고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스스로 그러하며, 스승도 없는 붓다가 “나에게 들렸다”라고 말할 리 없다. 만일 붓다가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붓다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붓다는 아난다의 물음에 이 표현을 주지시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를 비난할 것 없다.

[트리빠따까 결집의 인연]

3. 또한 붓다의 법칙을 세상에 오래 보존코자 현자 마하까샤빠<sup>50)</sup>와 다른 아르하트들이 아난

*dhyāyati vistareṇa yāvat [sarvaṃ] na nisṛitya dhyāyati. Iha Saṃtha bhikṣor[빠알리: bhairassapurisājāniyassa] yā pṛthivyāṃ pṛthivisaṃjñā sā vibhūtā bhavati. apsu apsaṃjñā vistareṇa yāvat [sarvatra sarvasaṃjā] sā vibhūtā bhavati. evaṃ dhyāyī bhikṣuḥ [빠알리: bhadro purisājāniyo] na pṛthivīm nisṛitya dhyāyati vistareṇa yāvan na [sarvaṃ sarvaṃ iti] nisṛitya dhyāyati. evaṃ dhyāyinaṃ bhikṣuṃ [빠알리: bhadraṃ purisājāniyaṃ] sendrā devāḥ seṣānāḥ [빠알리: sabrahmakā] sa prajāpatayaḥ ārān namasyanti.*

*namas te puruṣājanya namas te puruṣottama  
yasya te nābhijānīmaḥ kiṃ tvaṃ nisṛitya dhyāyasi.*

TTr: 삼타여, 빅슈는 땅, 물, 불, 바람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공처(空處), 식처(識處), 무소유처(無所有處),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해와 달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보고, 듣고, 알고, 인식함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취한 것과 갈망한 것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마음에 의한 상속적 추론과 조사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명상자는 어찌 땅을 비롯한 이것들에 의존함이 없이 나아가 모든 것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경지에서 명상하는가? 아 삼타여! 이점에서 빅슈가 지닌 땅에 관한 관념은 제거되었다. 물에 관한 관념, 모든 것에 관한 관념 모두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명상하는 빅슈는 땅에 의존함 없이 나아가 모든 것에 의존함 없이 명상한다. 이렇게 인드라들, 이사나들, 천신과 더불어 창조신들(Prajapatis)은 저 멀리서 명상에 든 빅슈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대에게 경배합니다. 인간 가운데 빼어난 분이여  
그대에게 경배합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수승한 분이여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르고 있다오  
그대가 명상하는 그 무엇에 의지하여 명상해야 하는지.

이 텍스트의 중요성을 수차 강조한 루이 드 라 발레 푸생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 오래된 경에서, 두 학파는 자신들의 형이상학적 주제들의 확증을 잃어낸다. 하지만 서로 화합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미륵-무착(Maitreya-Asaṅga) 학파는 까뜨야야나의 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재, 경이 집필되고 수 세기가 지나서야 자신들이 발견한 眞如(tathata)라 불리는 것을 명상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학파들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브하바위웨가는 까뜨야야나의 아들이 없음(無)에 관해 명상한다고 말한다. 없음만이 세계에 존재하기에, 그는 까뜨야야나의 아들을 청변의 선구자로 만든다...경전은 진정한 명상 이외에 아무것도 가르치는바 없다.” (Lav., *Dogme et Philosophie*, p. 92; *Madhyamaka*, MCB II, 1932~33, p. 55도 볼 것.)

49) des périodes incalculables, incalculable periods, *asaṃkhyeyakalpa*, 阿僧祇劫

다에게 물었다. “붓다가 처음으로 법칙을 설한 곳은 어디이며, 어떤 법칙을 설하였는가?” – 아난다가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었다, 한 때: 붓다가 한 때 바라나시국<sup>51)</sup>, 녹림<sup>52)</sup>의 선인들<sup>53)</sup> 거처에 머물고 있었다. 다섯 빅슈를 위해 붓다가 고통에 관한 송고한 진리들<sup>54)</sup>을 설하였다. 붓다가 말하길, 나는 원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들은 바 없다. 법칙에 관해 올바르게 생각하니 눈,<sup>55)</sup> 지혜,<sup>56)</sup> 청각,<sup>57)</sup> 깨달음<sup>58)</sup>을 얻었다. 이 경을 여기에 자세히 설하겠다.”

마찬가지로 『집법경』<sup>59)</sup>에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붓다가 니르바나에 들었을 때, 땅이 여섯 번 흔들리고, 강물이 여섯 번 거슬러 올라가고, 바람은 폭풍우가 되어 몰아치고, 시커먼 구름이 지평선 사방으로 솟구치고, 천둥과 번개, 우박과 소낙비가 쏟아부었다. 사자와 야생 동물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신과 인간들이 거대한 탄식을 자아냈다. 신과 인간이 모두 이렇게 말했다. “붓다가 니르바나에 들었다. 아! 세상의 눈<sup>60)</sup>이 꺼졌다.” 이와 동시에 온갖 풀과 숲, 약초와 나무가 곧 바로 갈라졌다. 산들의 왕 수메루의 토대가 흔들거리고, 파도가 솟구치고, 땅이 크게 요동쳤다. 산과 절벽이 무너져 내리고, 나무들이 산산조각 갈라지고, 사방으로부터

50) l'āyusmat Mahākāśyapa, 長老摩訶迦葉

51) le pays de Po lo na, the country of Po lo na, Vārāṇasī, 波羅捺國

52) *Lou lin*, Mṛgadāva, 鹿林

53) *Sien jen*, Rṣipātana, 仙人

54) les vérités nobles sur la douleur, the noble truths on suffering, *duḥkhāryasatya*, 苦聖諦

55) l'œil, the eye, *caḥṣus*, 眼

56) le savoir, the knowledge, *jñāna*, 智

57) l'ouïe, the ear, *śrotra*, 明

58) l'éveil, the awakening, *buddhi*, 覺

Mppś는 라자그리하 결집의 이 이야기를 전하며 관례에 따라 설일체유부와 율장의 관계를 축어적으로 따르고 있다(*Che song liu*, T 1435, k. 60, p. 448 b; Przuluski, *Concile*, p. 230).

59) Dharmasaṃgrahasūtra, 『集法經』

Mppś의 제일차 결집 이야기에 영감을 준 『集法經』은 *Kia ye kie king*, T 2027과 매우 유사한 듯하다. 프르질루스키의 주석에 따르면 Mppś와 『集法經』은 특히 운문에서 그 관련성이 돋보인다.

이 결집 이야기는 프르질루스키가 그의 유명한 저술 *Le Concile de Rajagrha*, ch. III, p. 57~73에 번역해 실었다. 나로서는 약간의 간략한 수정을 가해 그의 번역을 재인용 하는 것 외에 더 나은 방도를 찾을 수 없다. 내 주석에는 주로 그가 수집한 다른 전거들을 활용하였다. 다음은 그 가운데 Taishō에 포함된 출전 목록들이다.

1) 경 및 논서: *Kia ye king*, T 2027, Vol. 49, p.4 b ~ 7 a. – *A yu wang king*, T 2043, k. 6, p. 150 a ~ 152 c 7과 *A yu wang tchouan*, T 2043, k. 3~4, p. 112 a ~ 114 a 25. – *Fo pan ni yuan king*, T 5, k. 2, p. 175 a ~ 175 c 21과 *Fan ni yuan king*, T 6, k. 2, p. 190 c ~ 191 a. – *Fen pie kong louen*의 세 단편, T 1507; *Ta pei king* 발췌, T 380, k. 5, p. 971 b 11; *P'ou sa tch'ou t'ai king* 발췌, T 384, k. 7, p. 1058 a-b.

2) 율서: *Cullavagga*, XI, *Pāli Vinaya*, II, p. 284~293, 및 *Wou fen liu*, T 1421, k. 30, p. 190 b-192 a. – *Sseu fen liu*, T 1428, k. 54, p. 966 a ~ 968 c와 *P'i ni mou louen*, T 1463, k. 4, p. 818. – *Mo ho seng k'i liu*, T 1425, k. 32, p. 490 b ~ 493 a. – *Che song liu*, T 1435, k. 60, p. 447 a ~ 450 a.

프르질루스키는 의도적으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Mūlasarvāstivādin Vinaya*)』의 결집 이야기를 제외시켰으므로 우리는 한역 *Ken pen chou... tsa che*, T 1451, k. 39, p. 402 c~ 407 c, *Dulwa*, XI, p. 651 이하의 티베트어역 그리고 여기에 오베르밀러(E. Obermiller)의 *Bu ston*, II, p. 73~91 번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바수미트라(Vasumitra, 世友)의 주석이 제공하는 정보도 간과하지 말자. Cf. P. Demiéville, *L'origine des sectes bouddhiques d'après Paramārtha*, MCB, I, 1931~32, p. 25~30.

제1차 결집에 관한 이전 작업들의 상세한 문헌 목록은 가이거(Geiger)가 번역한 *Mahāvamsa*, p. LI~LIV에서 읽을 수 있다.

60) l'œil du monde, the eye of the world, *lokacaḥṣus*, 世間眼



연기가 솟아올랐다. 진정 거대한 공포였다. 늪과 강이 흔들리며 모두 탁해지고 낮에도 혜성이 출현하였다.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고, 신들은 슬픔에 빠지고, 여신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며 오열하였다. 수행자들은 침묵 속에 괴로워하고, 깨달은 자들은 조건적 존재 모두 덧없는 것이라 여겼다. 이렇게 천신,<sup>61)</sup> 사람,<sup>62)</sup> 야차,<sup>63)</sup> 나찰,<sup>64)</sup> 건달바,<sup>65)</sup> 긴나라,<sup>66)</sup> 마호라가<sup>67)</sup> 그리고 용<sup>68)</sup> 할 것 없이 누구나 커다란 슬픔을 겪었다. 그들 나름대로 늪, 병, 죽음의 바다를 건넌던 위대한 아르하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우리는 이미 세속에서의 집착의 바다를 건넌으며,  
 늪, 병, 죽음도 가증스러워 이미 없애버렸거늘,  
 이 몸은 네 마리 큰 뱀<sup>69)</sup>이 담긴 통,  
 남김없이 부수어 이제 니르바나로 들어가자.

위대한 아르하트들은 제각기 산, 숲, 강, 샘, 계곡에 자신의 몸을 버리며 빠르니르바나에 들었으며, 또한 아르하트들은 기러기들의 왕처럼 비상하여 하늘로 사라지며 갖가지 신통력을 부려 많은 사람들이 청정한 법심을 얻게 하고는 빠르니르바나<sup>70)</sup>에 들기도 하였다. 이어 그들의 빠르니르바나 이후 여섯 욕망의 세계<sup>71)</sup>의 신들로부터 순수한 처소<sup>72)</sup>의 신들에 이르기까지 아르하트들이 니르바나에 든 것을 보고는 저마다 생각하길, “붓다의 해는 떨어졌다. 갖가지 사마디, 해탈, 지혜를 이룬 제자들, 그들의 광채도 사라졌다. 존재들은 욕망<sup>73)</sup>·분노<sup>74)</sup>·어리석음<sup>75)</sup>의 갖가지 병에 시달리는 법인데 이제 법칙의 의사들<sup>76)</sup>마저 서둘러 니르바나로 들어가려 하니 누가 존재를 치료할 것인가? 지혜의 큰 바다에 피어난 연꽃<sup>77)</sup>과도 같은 제자들도 이미 말라 죽어버렸다. 법칙의 나무<sup>78)</sup>는 부러지고, 법칙의 구름<sup>79)</sup>은 흩어지고, 큰 지혜를 지닌 코끼리가 물러가니, 그 새끼들이 뒤를 따랐다. 법칙의 상인<sup>80)</sup>들이 지나갔으니 법칙의 보물<sup>81)</sup>을

---

61) Deva, 天  
 62) Mānuṣa, 人  
 63) Yakṣa, 夜叉  
 64) Rākṣana 羅刹  
 65) Ghandharva, 犍闍婆  
 66) Kīṃnara, 甄陀羅  
 67) Mahoraga, 摩睺羅伽  
 68) Nāga, 龍  
 69) 네 마리 뱀은 네 가지 요소. Mppś, k. 12, p. 145 b의 『네 마리 독사 비유경(Sūtra of the Comparison of the Four Venomous Snakes)』 그리고 ‘우물에 빠진 인간(L’homme dans le puits)이라는 제목의 우화의 다양한 판본 참조(Chavannes, *Contes*, p. 83~84; III, p. 257; IV, p. 158, 235~238). J. Ph. Vogel, *L’homme dans le puits*, RAA, XI, 1937, p. 109~115).  
 70) 붓다의 빠르니르바나에 이어지는 아르하트들의 빠르니르바나 그리고 신들의 불안에 대한 언급은 다음 경전들에도 언급되어 있다: *Kīa ye kie king(Concile*, p. 3~4), *Légende d’Aśoka(Concile*, p. 27), *the Ken pen chou...tsa che*, T 1451, k. 39, p. 402 c: 사리뿌뜨라와 동시에 팔만 빅슈가, 目犍連(Maudgalyāyana)과 동시에 칠만의 빅슈가, 붓다와 동시에 만팔천 빅슈가 사망하였다.  
 71) six mondes du désir, six realms of desire, *kāmaloka*, 六欲天  
 72) les résidences pures, the pure abodes, *śuddhāvāsa*, 遍淨天  
 73) le désir, the desire, *rāga*, 婬  
 74) la haine, the hatred, *dveṣa*, 怒  
 75) la sottise, the stupidity, *moha*, 癡  
 76) ces médecins de la loi, the physicians of the Dharma, *dharmabhāṣajyācārya*, 法藥師  
 77) le lotus, *puṇḍarīka*, 蓮華  
 78) l’arbre de la loi, the tree of the Dharma, *dharmavṛkṣa*, 法樹  
 79) le nuage de la loi, the cloud of Dharma, *dharmamegha*, 法雲

누구로부터 구하랴?” 한 계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붓다는 이미 영원한 평온 속에 니르바나에 들고,  
매듭을 끊은 모든 존재 역시 떠나버리니,  
세상은 이렇게 공하여 지혜도 사라졌으니,  
무지의 어둠 더욱 심해 지혜의 빛 또한 멀하였다네

그러자 모든 신이 마하까샤빠의 발에 예를 올리고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다.

노장이여! 욕망과 분노와 교만<sup>82)</sup>을 뿌리쳤구려.  
그대 몸은 붉은 금 기둥<sup>83)</sup>을 닮았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장엄함과 경이로움이 비할 바 없네.  
두 눈은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나서 신들이 마하까샤빠에게 말했다. “오 존자 마하까샤빠여! 그대는 알고 있는가? 오 사냐<sup>84)</sup>, 법칙의 배가 가라앉으려 하고, 법칙의 성은 무너져 내리려 하고, 법칙의 바다는 말라버리려 하네, 법칙의 깃발은 뒤집히려 하고, 법칙의 등은 꺼지려 하고, 법칙을 설하는 사람들은 떠나려 하고,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악인들의 힘은 거대해져 가니, 큰 자비를 베풀어 붓다의 법칙을 굳건히 세우시오.”<sup>85)</sup>

이때 위대한 까샤빠의 마음이 바다처럼 맑고 고요해져 잠시 후 대답했다. “그대들의 말이 옳소. 실재 그대의 말 그대로요. 머지않아 세상의 지혜는 다하고 어둠에 쌓일 것이오. 이렇게 위대한 까샤빠가 말없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자 신들은 위대한 까샤빠의 발에 예를 올리고 홀연히 사라져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때 위대한 까샤빠는 생각해보았다. “이 세 번의 쉼 수 없이 긴 겁 동안에 어렵게 얻은 이 붓다의 법칙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까샤빠가 말하길, “이 법칙을 오래도록 보존할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수뜨라<sup>86)</sup>, 아비다르마<sup>87)</sup>, 비나야<sup>88)</sup>를 모아 법칙의 트리빠따<sup>89)</sup>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붓다의 법칙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후인들이 법칙을 이어받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어찌 그러한가? 붓다는 살아온 세상마다 고생해가며 존재들을 향한 자비심<sup>90)</sup>에서 법칙을 얻어 설하였느니, 우리도 이와 같이 붓다의 교의를 따르고 받들며 이를 세상에 알리고 선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위대한 까샤빠는 수메루산 정상으로 올라가 구리 징<sup>91)</sup>을 울리며 계송을 읊

80) les médecins de la loi, the merchants of the Dharma, *dharmavaṇij*, 法商

81) le joyau de la loi, the jewel of the Dharma, *dharmaratna*, 法寶

82) l'orgueil, the pride, *māna*, 慢

83) une colonne d'or rouge, a column of red gold, *raktasuvāṇastambha*, 紫金柱

84) Śākya, 한역에 없는 표현.

85) *Kia ye kie king(Concile, p. 4)* 그리고 *La Légende d'Asoka(Concile, p. 28)*에도 천신 특히 샤크라(Śakra)와 네 천왕이 교의를 취합하려 까샤빠를 초대한다.

86) les *Sieou tou lou*, the *Sieou tou lou*, Sūtras, 修妬路

87) l'A p'i Van, the A p'i t'an, Abhidharma, 阿毘曇

88) le P'i ni, the P'i ni, Vinaya, 毘尼

89) les trois Corbeilles de la loi, 三法藏

90) la compassion, the compassion, *anukampā*, 慈愍

91) la gandī de bronze, the bronze gaṇḍī. 銅撻稚. gaṇḍī는 징, gong을 의미.

었다.

붓다의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붓다의 기억을 고이 간직하라.  
붓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느니라,  
니르바나에 들지 말지어다.

이 종소리와 위대한 까샤빠의 음성이 삼천대천세계<sup>92)</sup>로까지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다. 신통력<sup>93)</sup>을 지닌 모든 제자들이 위대한 까샤빠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러자 위대한 까샤빠는 이들에게 말했다. “붓다의 법칙이 꺼지려 한다. 삼세 무수한 긴 겁<sup>94)</sup> 동안의 힘든 노력과 존재를 위한 자비심으로 공부하여 이 법칙을 얻은 붓다가 니르바나에 들었다. 법칙을 알고 이를 지키고 암송하던 그 제자들도 모두 니르바나에 들었다. 이제 법칙이 없어지려 하니 후세의 존재에게 큰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들은 지혜의 눈을 잃고 어리석음에 빠져 눈이 멀 것이다. 붓다는 존재를 대자비로써 가련히 여겼으니, 우리도 붓다의 법칙을 소중히 따라야 한다. 그러니 경장을 결집하고 나서 니르바나에 들도록 하자.”<sup>95)</sup>

모임에 온 모든 사람이 이 지시를 받아들이고 함께 머물렀으며, 이를 위해 위대한 까샤빠는 천 명을 소집하였다.<sup>96)</sup> 아난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아르하트여서 여섯 신통력을 지녔으니 완전한 해탈과 거리낌 없는 해탈을 얻었고, 누구나 세 지혜<sup>97)</sup>와 사마디 평정<sup>98)</sup> 상태에 들어 자유롭게 바로 혹은 거꾸로<sup>99)</sup> 사마디를 행하니 장애<sup>100)</sup>가 없었다. 이들은 트리빠따까를 암송하고 내외 성전<sup>101)</sup>을 꿰뚫고 있었다.<sup>102)</sup> 외도의 열여덟 위대한 경<sup>103)</sup>들도 알고 있어 이 경들을 외우고 그만큼 완벽하게 숙지하여 그 모두 논쟁에서 외도<sup>104)</sup>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

아쇼카 왕의 전설(*Légende d'Asoka, Concile*, p. 28)에서도 까샤빠는 대중을 소집할 때 구리 징을 쳐서 잠부드위빠와 삼천대천세계 곳곳에 울리도록 했다 - 다른 출전들 *Kia ye king, Tchouan tsi san tsang(Concile, p. 5, 95)*은 단순히 까샤빠가 상가를 소집했다고만 전한다. - *P'ou sa tch'ou t'ai king(Concile, p. 126)*는 까샤빠가 오백 아르하트를 시방세계에 보내 결집을 알렸다. 이들은 팔십만사천 명과 함께 사바세계로 돌아왔다고 전한다.

92) le Trichiliomégachiliocosme, the entire trichiliomegachiliocosm, *trisahasramahasahasralokadhatu*, 三千大千世界

93) les forces miraculeuses, the miraculous powers, *ṛddhibāla*, 神力

94) trois périodes incalculables, three incalculable periods, *asamkhyaya kalpa*, 三阿僧祇劫

95) 『아쇼카 왕 전설(*Légende d'Asoka, Concile*, p. 28)』에는 까샤빠가 경전을 결집하기 전까지는 니르바나에 드는 것을 금지하였음을 밝힌다.

96) 대부분의 문헌은 제일차 결집 참여자를 오백 인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을 천 명으로 추정하는 문헌도 있음을 밝힌다(*Mahāsāṃghika Vinaya(Concile, p. 204)* 그리고 현장의 『서역기(*Si yu ki*)』, tr. Beal, II, p. 161; Watters, *Travels*, II, p. 160. Mppś의 저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천 인이라 밝히지만 뒤에서는(p. 69 c) 오백 인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프르질루스키 말처럼 이 참여자 수는 일정하지 않다.

97) les trois sciences, three knowledges(*vidya*), 三明

98) la maîtrise en concentration, the mastery of samādhi, *samādhivaśitā*, 禪定

99) d'une manière inverse ou directe, forward or reverse direction, *pratilomānulomataḥ*, 逆順

100) les obstacles, the obstacles, *avyadhata*, 礙

101) les écrits sacrés internes(*ādhyāmika*) et les écrits sacrés exetrnes(*bāhya*)

102) 프르질루스키는 정전과 외전, 나아가 불교 및 비불교 경전 모두를 포함시킨다.

103) 이 열여덟 경에 관해서는 *Bukkyō daijiten*, p. 941 b를 볼 것.

104) les sectes hérétiques, the heterodox, *pāṣaṇḍa*, 異學

[라자그리하성 일천 인 공양-경장 결집 인연]

물음: 그토록 셀 수 없이 많은 아르하트가 있었음에도 왜 일천 인만 선택하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았는가?

답: 빔바사라왕<sup>105</sup>이 도를 구했을 때 팔만사천 권속들도 함께 도를 구했다. 이때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늘 일천 인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라”<sup>106</sup> 아사세왕<sup>107</sup>도 이 법칙을 어기지 않았다. 이때 위대한 까샤빠가 생각하길 “지속적으로 음식을 구걸한다면 외도들이 와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리 지위를 박탈할지도 모른다. 지금 라자그리하<sup>108</sup> 성에서는 계속 일천 인에게 공양을 베풀고 있다.<sup>109</sup> 경장을 결집하며 여기에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고로 일천 인을 선택하고 그 이상 소집할 수 없었다.

위대한 까샤빠는 일천 인과 더불어 기사굴산<sup>110</sup> 위의 라자그리하 성으로 가서 아사세 왕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매일 공양을 베풀어 주시오. 이제 우리는 경장을 결집하여 하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소.”

이곳의 셋째 달 여름 안거 기간 중 첫 보름째 날 계를 암송할 즈음 위대한 까샤빠는 상가를 소집하고는 사마디에 들어, 모인 일천 인 가운데 누가 아직도 번뇌<sup>111</sup>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는지를 신성한 눈<sup>112</sup>으로 살폈다. 그런 사람은 추방당해야 마땅했다. 유독 아난다만이 번뇌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고, 나머지 구백구십구 인은 이미 번뇌가 사라져 모두 청정무구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위대한 까샤빠는 사마디 평정 상태에서 깨어나 무리로부터 아난다를 손을 잡고 이끌며 말했다. “이제 이 청정한 무리들이 모여 경장을 결집하려 한다네. 그대만이 아직 굴레<sup>113</sup>를 끊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머무를 수 없소.”

그러자 아난다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시름에 잠겼다. ‘스물다섯 해 동안 바가와뜨를 모시고 다니며 항상 당신의 곁을 지켰지만 이렇게 심한 고통을 경험한 적은 적이 없었는데.<sup>114</sup> 붓다는 진정 존엄하고 자비로우며 인내심 또한 대단한 분이시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

105) P'in p'o so lo, Bimbasāra, 頻婆娑羅王

106) 이것은 빔바사라 왕이 붓다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내린 명령이다. 위의 p. 84 주석 459를 볼 것.

107) le roi A chō che, the King A chō-che, Ajātaśatru 阿闍世王

108) la ville de Wang chō, the city of Wang chō, Rājagrha, 王舍城

109) 몇몇 문헌들이 결집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베푼 아사세왕의 환대를 묘사한다. *Légende d'Asoka(Concile, p. 38)* 및 *Ken pen chou... tsa che, T 1451, k. 39, p. 404 a~b* 참조.

110) la montagne K y i chō kiue, the mountain K'i chō kiue, Ḡḍhrakūṭaparvata, 耨闍崛山

결집은 라자그리하에서 이루어졌지만 정확한 장소는 출전에 따라 다르다: 삐빠라야나 암굴(*Ken pen chou... tsa che, T 1451k. 39, p. 404 b*; *Légende d'Asoka in Concile, p. 38*); 와이하라(Vaiḥāra, 빠리 Vebhāra) 산 쪽 삽따빠르나(Saptaparṇa) 동굴(Mahāvastu, I, p. 70; *Mahāvamsa*, III, v. 19); 차오티(*Tch'a a ti*) 산 혹은 초트(*Tch'o t*) 산 동굴(*Mahāsaṃghika Vinaya, T 1425, k. 32, p. 490 c*; Legge, *Fa-hien, p. 85*); 닥시나(Dakṣiṇa) 산 북측에 위치한(Hiuan-tsang in Waters, *Travels, II, p. 160*); 냐그로다(Nyagrodha) 동굴(Dulwa in Rockhill, *Life, p. 151*).

111) les passions, the afflictions, *kleśa*, 煩惱

112) divine eye, *divyacakṣus*, 天眼

113) tes liens, your bonds, *bandhana*, 汝結

114) 붓다는 이십여 년간의 전법륜 후 오십 세가 되어 아난다를 시자(*upasthāyaka*)로 삼았다. 자신의 의무를 수락하기 전 아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붓다의 음식이나 옷을 함께 사용하지 않음; 불자들의 처소에 동행하지 않음; 항상 붓다를 알현함. *Che tchō king Upasthāyakasūtra, 根本說一切有部, Tchong a han, T 26(n° 33), k. 8, p. 471 c ~ 475 a, Mūlasarvāstivādin Vinaya(Rockhill, Life, p. 88)*를 볼 것. 그리고 *Saddharmapuṇḍarika*(『妙法蓮華經』)의 주석서

자 아난다는 위대한 까샤빠에게 말했다. “내가 도를 구하고자 했다면 긴 세월 동안 능히 도를 구했을 것입니다. 다만 붓다의 법칙을 따르자면 아르하트는 아무도 섬겨서도 안 되고 곁에서 모셔서도 안 되며, 명을 받들어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굴레를 모두 끊지 못한 채 부여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까샤빠가 말했다. “게다가 그대는 여러 과오<sup>115)</sup>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소. 붓다는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려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대가 붓다에게 간절히 청하여 이들에게 출가하여 도을 닦게 허락함으로써 오백 년 후 붓다의 바른 법칙이 쇠락하게 되리니, 그대는 악행<sup>116)</sup> 죄를 범한 것이오.” 아난다가 말했다. “그것은 붓다의 계모 가우따미<sup>117)</sup>를 동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삼세의 부처들에게는 항상 사부대중으로서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샤까무니<sup>118)</sup> 홀로 이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까?”

위대한 까샤빠가 덧붙여 말했다. “붓다가 니르바나에 들 무렵, 꾸시나가라<sup>119)</sup> 가까이 갔을 때 등창 때문에 중의<sup>120)</sup>를 네 번 포개 접어 그 위에 누우셨지. 그때 붓다가 그대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시고 싶다 하셨는데, 그때 물을 공양하지 않은 것은 악행 죄를 범한 것이오다.<sup>121)</sup> 아난다가 답하길, “당시는 수레 오백 대가 강을 건너는 바람에 흙탕물이 되어 물을 드

Wen kiu, T 1718, k. 2, p. 18 b 같은 다른 작품도 볼 것. — *L'upasthāyakasūtra*와 일치하는 빠알리 경전은 없으나 붓다고사의 주석에 더욱 상세한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여기에서 아난다의 조건이 여덟 개로 늘어난다: *Manorātha*, I, p. 294~296; *Theragāthā* 주해, Rh. D., Brethren, p. 350~352; Hardy, *Manual*, p. 234~235.

115) des fautes, the faults, *āpatti*, 罪(犯戒)

모든 결집 관련자들이 보는 가운데 까샤빠는 몇몇 잘못 때문에 아난다를 꾸짖었다. 두 잘못을 언급한 것은 *Fen pie kong tō louen*(*Concile*, p. 120~122), 네 잘못 언급은 *Tchouan tsi san tsang*(*ibid*, p. 97-98); 다섯 가지는 *Pāli Vinaya*(*ibid*, p. 156~159); 여섯 잘못 언급은 *Mahīśāsaka Vinaya*(*ibid*, p. 148-153), *Sarvāstivādin Vinaya*(*ibid*, p.232~234) 및 *Légende d'Asoka*(*ibid*, p. 47~51); 일곱 잘못은 *Dharmagupta Vinaya*(*ibid*, p. 182~186), *Mahāsāṃghika Vinaya*(*ibid*, p. 214~215), *Mūlasarvāstivādin Vinaya* 및 *Parinirvāṇasūtra*(*ibid*, p. 83); 아홉 잘못은 *Kia kie king*(*ibid*, p. 13-15). — Mpps 는 여섯 잘못을 들고 다섯 개만 나열하고 있다.

116) une faute *duṣkṛta*, a *duṣkṛta* fault, 突吉羅罪

아난다의 청원에 보이는 성직자의 제도를 기록한 문헌들 *Vinaya*, II, p. 253(tr: Rh. D.— Oldenberg, III, p. 320); *Anguttara*, IV, p. 274; *Tchong a han*, T 26(n° 116), k. 28, p. 605 a: *K'iu t'an mi ki kouo king*, T 60; *Ta feng pien fo pao ngen king*, T 156, k. 5, p. 152; *Ta ngai tao pi k'ieou ni king*, T 1425, k. 30, p. 471 a; *Sseu feu liu*, T 1428, k. 48, p. 922 c; *Che song liu*, T 1435, k. 15; *Ken pen chou... tsa che*, T 1451, k. 29-30, p. 350 b. — 이 제도에 관해서는 *Bhikṣuṇīkarmavacana*, M. Ridding et L. de La Vallée Poussin in BSOS, I, 1920, p. 124~125에 산스크리트어로 일부 기록되어 있다.

117) Kiu fan mi, Kiu t'an mi, Gautamī, 瞿曇彌(Mahāprajāpati)

118) notre Buddha Sākyamuni, our Śākamuni Buddha, 我釋迦文佛

119) Kiu yi na kie, Kuśinagara, 俱夷那竭

120) les vêtements de dessus, the supper robes, *uttarāsaṅga*, 漚多羅僧

121) 이 이야기는 경전마다 다양하게 전해진다.

1) *Tch'ang a han*, T 1 (no. 2), k. 3, p. 19 c: 목마른 붓다는 아난다에게 강으로 가서 잔을 채워 올 것을 연속 세 번 부탁하였다. 아난다는 수레 오백 대가 지나가 강이 더럽혀졌다고 답하고 까꿍타(拘孫江, Kakutsthā) 강으로 물 구하려 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때 불교로 개종한 어느 아수라(*asura*)가 여덟 번이나 정확한 물로 가득 채운 잔을 붓다에게 올리니 그를 공홀히 여기어 물을 마셨다. 이것이 빠알리 『율서(*Cullavagga*)』를 제외한 일차 결집과 관련한 언급 전체에서 아난다가 물을 거부한 사연이다.

2) *Fo pan ni yuan king*, T 5, k. 2, p. 168 a; *Pan ni yuan king*, T 6, k. 2, p. 183 c; *Ken pen chou... tsa che*, T 1451, k. 37, p. 391 a: 붓다의 요청에 아난다는 오백 수레가 지나가 물이 더럽혀진 것을 모른 채 곧장 까꿍타강으로 물을 길러 갔다. 그는 붓다에게 손 씻는 데만 그 물을 사용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근처 '희련하(希連

리지 못한 것입니다.” 위대한 까샤빠가 다시 말했다. “진정 물이 흐려졌다 해도 붓다는 신통력으로 물을 맑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는 왜 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는가? 이점에서 그대가 악행 죄를 범하였으니 다시 그대의 죄를 참회하라.

위대한 까샤빠가 다시 말하길, “붓다가 그대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신통력의 네 토대<sup>122)</sup>를 잘 닦으면 한 겁 혹은 그 일부의 삶이라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소. 붓다는 세 번이나 물었으나 그대는 묵묵부답이었지. 붓다는 신통력의 네 토대를 닦아 한 겁 혹은 그 일부 동안 삶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대로 인해 붓다 바가와뜨가 일찍 니르바나에 들었으니 그대가 악행 죄를 범한 것이지.”<sup>123)</sup> 아난다가 답하길, “그때 제 마음은 마라에 썩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 것입니다. 제가 악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까샤빠는 다시 말했다. “그대가 붓다의 면 가사<sup>124)</sup>를 밟은 것은 악행 죄를 범한 것이오.” 아난다가 답했다. “당시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경심이 모자라 붓다의 가사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까샤빠가 다시 말했다. “붓다가 빠르니르바나에 든 후 그대는 붓다의 숨겨진 고환<sup>125)</sup> 모습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은가? 악행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sup>126)</sup> 아난다가 답했다. “그 당시 내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만일 여인들이 붓

---

河)(Hiraṇyavatī river)로 가서 갈증을 풀라 하니 붓다가 이를 따랐다.

3) *Dīgha*, II, p. 128~129: *Ta pan nie p'an king*, T 7, k. 2, p. 197 b: 붓다의 요청을 받고 아난다는 바로 마실 물을 찾으러 세 번이나 부근에 있는 까곳타강으로 갔다. 처음 두 번은 물이 더러워 물을 길어 오지 않으려 거절했지만 세 번째 요청에 물을 길러 가서 보니 붓다의 말씀대로 강물이 맑아져 있어 크게 놀랐다.

빠알리 *Dīgha*의 아마도 수정본일 것이다—이러한 전통에 부합하여 일차 결집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Cullavagga*는 붓다가 청하는 물을 거절한 이유로 아난다를 비난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산스크리트 『大涅槃經(*Mahāparinirvāṇasūtra*)』 경전 구절과 이 전통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정작 다음 저술에 실린 간략한 요약본 정도만 알고 있다” E. Waldschmidt, *Beiträge zur Textgeschichte des Mahāparinirvāṇasūtra*, NGGW, Fachgr. III, Band II, Nr. 3, 1939, p. 55~94.

122) des quatre fondements de pouvoirs miraculeux, the four bases of miraculous power, cattāro rddhibāla, 四神足

123) 아난다가 마라(Māra)의 악령에 사로잡혀 붓다에게 자신의 삶을 한 겁(*kalpa*) 혹은 그 일부(*kalpāvaśeṣa*) 동안 연장해달라 간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Cf. *Dīgha*, II, p. 103; *Samyutta*, V, p. 259; *Aṅguttara*, IV, I, p. 62, *Tch'an a han*, T I (n° 2) k. 2, p. 15 b; *Fo pan ni yuan king*, T 5, k. I, p. 165 a; *Pan ni yuan king*, T 6, k. 1 p. 180 b; *Divyāvādāna*, p. 201; *Ken pen chouo... tsa che*, T 1451, k. 36, p. p. 387 c. — 아난다에 대한 이 비난은 일차 결집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에 등장한다.

124) la *samghāṭī* de coton, the *samghāṭī*, 僧伽梨

125) la marque de cryptorchidie, the mark of cryptorchidy, *kośagatavastiguhyā*, 陰藏相

126) 경전마다 비난은 상이하게 드러난다.

1) *Légende d'Āśoka, Concile*, p. 50, *Sarvāstivādin Vinaya* p. 233 그리고 Mpp's는 아난다가 붓다의 은밀한 부분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비난한다. [이 정류 고환(*cryptorchidie*)에 관해서는 k. 4, p. 90 b를 볼 것]. 아난다는 여인들이 남성으로서의 존재를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사과하고 있다.

2) *Mahīśāsaka Vinaya*(p. 135), *Dharmagupta Vinaya*(p. 186), *Pāli Vinaya*(p. 137)에서는 여인들이 처음으로 붓다의 몸을 경배하게 허락하여 붓다의 몸이 눈물로 적시게 된 탓에 아난다를 비난하고 있다. 아난다는 그 이후의 일이라고 변론한다.

3) *Kīa ye kie king*(*Concile*, p. 15), *Mūlasarvāstivādin Vinaya*(Rockhill, *Life*, p. 154)에는 같은 비난거리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이 더해져 있다. 아난다는 붓다의 은밀한 신체 부분을 대중에게 보여주

다의 음장상을 본다면 그들 여성의 몸을 부끄럽게 여겨 남자의 몸을 얻길 원하여 붓다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복덕의 뿌리를 심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이런 이유에서 여인들에게 붓다의 성기를 보여준 것이지, 수치심을 몰라 계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까샤빠가 말했다. “그대는 이 여섯 가지 악행 죄<sup>127)</sup>를 범했으니, 이 모든 죄에 대해 상가에 참회<sup>128)</sup>해야 하오.” 아난다는 이에 동의하고 대가섭 장로와 상가의 법칙을 따르기로 했다. 아난다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sup>129)</sup> 가죽신을 벗고, 여섯 가지 악행 죄에 대해 참회하였다. 위대한 까샤빠는 아난다의 손을 끌고 상가를 빠져나와 아난다에게 일렀다. “그대의 부정함을<sup>130)</sup> 모두 끊은 후 돌아오라. 마지막 굴레<sup>131)</sup> 하나도 남김없이 파하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sup>132)</sup>

이때 모든 아르하트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비나야와 다르마빠따까<sup>133)</sup>를 외울 수 있겠는가?” 장로 아니룻다<sup>134)</sup>가 말했다. “제의의 붓다인 사리뿌뜨라<sup>135)</sup>에게 가왓빠띠[진나라 말로 소의 숨결]<sup>136)</sup>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소.<sup>137)</sup> 온화하고 친화적인 그는 늘 한적한 곳에 머물렀지. 니까야와 다르마빠따까를 알고 있으며 지금은 천상의 시리샤와나<sup>138)</sup>에 머물고 있으니 사자를 보내어 이리 오도록 청합시다.”

위대한 까샤빠가 방금 명을 전해 받은 빅슈에게 말했다.<sup>139)</sup> “그대는 상가의 명에 따르겠는가?” 명을 받은 빅슈가 말했다. “상가는 어떤 명을 내리시려는지요?” 위대한 까샤빠가 말했다. “상가가 그대에게 명하오니 천상의 시리샤와나에 머무는 아르하트 가왓빠띠에게 가라.” 빅슈는 환희에 젖어 상가의 명을 받아들이며 위대한 까샤빠에게 말했다. 아르하트 가왓빠띠를 만나면 무어라 전할까요?” 위대한 까샤빠가 말했다. “도착하면 가왓빠띠에게 말하라. 위대한 까샤빠와 번뇌를<sup>140)</sup> 파한 나머지 아르하트들이 모두 잠부드위빠에 모였으며, 상가를 위한 중

고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붓다를 경배토록 허가하였다.

127) six sortes de fautes duskrta, six kinds of duṣkṛta faults, 六種突吉羅罪

128) confesser, confess, *pratideśana*, 懺悔

129) se découvrit l'épaule droite, uncovered his right shoulder, *ekāṃsam uttarāsaṅgam kuritvā*, 偏袒右肩

130) tes impuretéyour s, impurities, *āsrava*, 汝漏

131) les liens, the bonds, *bandhana*, 結

132) 프리질루스키는 이러한 아난다 심판에서 '희생양을 추방하여 공동체를 정화하는 관습적 절차'를 보고 있다(*Concile*, p. 268).

133) le Vinaya et le Dharmapiṭaka, the Vinaya and the Dharmapiṭaka, 毘尼法藏

134) ayuṣmat *A ni lou teou*(Aniruddha), 長老阿泥盧豆

135) *Chō li fou*, Śāriputra, 舍利弗

136) Kiao fan po t'i, Gavāmpati, 憍梵波提(秦言牛伺)

137) 가왓빠띠의 일화가 서술된 경전: *Kia ye kie king*(*Concile*, p. 6~11), *Légende d'Asoka*(p. 29-32), *Tchouan tsi san tsang*(p. 96~97), *Fen pie kong tōo louen*(p. 115~116), *Mūlasarvāastivādin Vinaya*(Rockhill, *Life*, p. 149~150). 까샤빠의 요청에 아니룻다가 세상을 관찰하며 아르하트 모두가 모임에 참석하였는지 살폈다. 그는 쉬리샤스(Śirīṣas) 궁에 있는 가왓빠띠를 발견하였다. 뿌루나(Pūrṇa) 혹은 수프라붓다(Suprabuddha)라는 청년이 그를 소환하는 명을 받았다. 붓다의 죽음을 알게 된 가왓빠띠는 곧 바로 니르바나에 들었다. 그가 소신하자 공중에서 네 개의 샘 줄기가 품어 나와 그의 재를 적시고 가타(*gāthā*, 偈經)를 낭송하였다.

이 인물에 관해서는 *Vinaya*, I, p. 19; *Dīgha*, II, p. 356; *Theragāthā*, v. 38; *Sumaṅgala*, III, p. 814를 볼 것. 프리질루스키는 그를 건조함 그리고 바람의 신과 동일시한다.

138) *Che li cha chou yuan*, Śirīṣavana, 尸利沙樹園.

빠알리 원전의 '*serīskavimāna*'. *Cātmahārājikas* 세계에 위치한 궁전, *Dīgha*, II, p. 356을 참조 할 것.

139) 다른 경전들에 근거하면 이 빅슈는 부루나(Pūrṇa) 혹은 '수파불(須波弗, Suprabuddha)'로 추정된다.

140) les impuretés, the impurities, *kṣīṇāsrava*, 漏

대한 법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서둘러 오라고.”

[68 c] 명을 받은 빅슈는 상가를 향해 머리 숙여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가루다<sup>141)</sup>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가얏파디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어 예를 올리며 아뢰었다. “은화하고 선한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은 욕망을 끊어 만족할 줄 알기에 늘 사마디 평정 상태에 드셨습니다. 위대한 까샤빠의 간청을 당신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상가에 대법사가 이루어지는 고로 속히 내려와 이 법사를 돌보아 주소서.”

그러자 가얏파디가 의문을 품고 빅슈에게 말하길, “나를 부르다니 혹시 상가에 다통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지요. 상가를 파괴하는 자가 있더라도 합니까. 붓다의 태양이 멸하기라도 했습니까?”

빅슈가 말하길, “당신 말씀대로입니다. 위대한 스승 붓다가 니르바나에 드셨습니다.”

가얏파디가 말했다. “붓다가 그토록 일찍 니르바나에 들다니 세상의 눈<sup>142)</sup>이 사라졌구려. 붓다처럼 법칙의 바퀴를 굴릴 수 있던 나의 스승 사리뿌뜨라<sup>143)</sup>는 어디에 계시는가?”

빅슈가 답했다. “벌써 니르바나에 드셨습니다.”

가얏파디가 말했다. “위대한 스승들, 법칙의 수장이 사라지고 없으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근원이란 무엇인가? 마하마우드갈라냐<sup>144)</sup>는 어디에 계시는가?”

빅슈가 답했다. “그도 이미 니르바나에 드셨습니다.”

가얏파디가 말했다. “붓다의 법칙이 멸하려는구나. 위대한 사람들이 가니 존재들이 가련토다.” 그가 물었다. “장로 아난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로 아난다는 붓다가 니르바나에 든 이래 슬픔에 울며 절망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얏파디가 말했다. “아난다의 회한은 아직 집착의 굴레<sup>145)</sup>를 끊지 못함에서 비롯하니, 그 고통은 이별의 슬픔이 낳은 것이네. 라훌라<sup>146)</sup>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가 답했다. “라훌라는 아르하트가 되어. 슬픔도 근심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무상한 특성<sup>147)</sup>을 살피고 있을 따름입니다.”

가얏파디가 말했다. “애착을 끊기란 힘든 법인데, 일단 끊고 나면 슬픔도 없어지는 법이지.” 그는 말을 이었다. “이제 갈망을 끊은 위대한 스승을 잃었다. 여기 쉬리샤와나에 머무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높고 위대한 나의 스승들이 모두 니르바나에 드신 이상 잠부드디빠로 내려갈 수 없소. 여기에 머물다 빠르니르바나에 들려오.”

[69 a] 이와 같이 말하고 나서 그는 사마디 평정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몸을 공중으로 날려 빛을 발하며 물과 불을 내뿜어댔다.<sup>148)</sup> 그 손으로 태양과 달을 어루만지며 온갖 기적<sup>149)</sup>을 내보였는데, 가슴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불이 그 몸을 불사르고, 몸으로부터 나온 물

141) un oiseau aux ailes d'or, the bird with golden wings, 金翅鳥

142) l'œil du monde, the eye of the world, *lokacakṣus*, 世間眼

143) Chō li fou, Śāriputra, 舍利弗

144) Mo ho mou k'ie lien, Mahāmaudgalyāyana, 摩訶目伽連

145) les liens de l'affection, the bondage of passion, *anunayabandhana*, 愛結

146) *Lo heou lo*, Rāhula, 羅睺羅

147) le caractère impermanent, the nature of impermanence, *anityalakṣaṇa*, 無常相

148) 이것은 다양한 경우에 붓다가 이룩한 한 쌍의 쌍둥이 기적(twin miracles, *yamakaprātihārya*)이다(*Nidānakathā*, p. 77, 88, 193; *Mahāvastu*, III, p. 115; *Divyāvadāna*, p. 161, 378). 그리고 성인들이 종종 니르바나의 순간에 이루는 기적이기도 하다(아래 k. 3, p. 79 a, 마하까샤빠의 니르바나를 볼 것).

149) les miracles, the miracles, *prātihārya*, 神變



이 네 강이 되었고, 강물이 흘러 위대한 까샤빠 곁에 이르자 물속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다.

가장 존엄한 모임, 거룩한 분들의 상가 앞에  
이 가왓빠띠 고개 숙여 절 올립니다.  
붓다의 니르바나 소식을 접한 [그가 말한다] “붓다를 따르십시오.”  
어미 꼬끼리가 세상을 뜨면, 새끼가 어미를 따르듯이.

이때 명을 받았던 빅슈는 법의와 발우를 들고 상가로 돌아왔다.

이즈음 아난다는 모든 법칙의 성격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번뇌를 떨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좌선에 들기도 하고, 일어나 서성거리기도 하며 도를 구했다. 아난다의 지혜는 컸으나 사마디 평정 상태의 위력은 약해 쉽게 도를 구하지 못했다. 그의 사마디 평정 능력이 그의 지혜만 같았어도 도를 쉽게 구했으리라. 결국 밤이 거의 다하고 피로가 극해 달하자 아난다는 자리에 누웠다. 그때, 누우며 머리를 베개<sup>150)</sup>에 얹고자 하였으나 베개를 찾지 못해 뒤적이다 돌연 깨달음을 얻었다.<sup>151)</sup>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번갯불을 보듯 도를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아난다는 금강과도 같은 사마디 평정 상태<sup>152)</sup>에 들어갔고 모든 집착의 산을 무너뜨리고 세 지혜<sup>153)</sup>, 여섯 신통력,<sup>154)</sup> 완전한 해탈<sup>155)</sup>을 얻어 막강한 아르하트가 되었다.

아난다는 그날 밤 즉시 상가가 응집해 있던 처소의 문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다. 위대한 까샤빠가 물었다. “문을 두드리는 자 누구시오?”

아난다가 답했다. “아난다입니다.”

위대한 까샤빠가 말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아난다가 답했다. “오늘 밤 저는 모든 번뇌를 끊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위대한 까샤빠가 말했다. “그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 열쇠 구멍으로 들어오시오!”

아난다가 답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신통력<sup>156)</sup>을 써서 열쇠 구멍으로 들어와<sup>157)</sup> 상가 교인들의 발치에 예배하고 참회하길, “위대한 까샤빠여, 더 이상 저를 책하지 마시옵길!”

그러자 위대한 까샤빠는 아난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대를 위하여 일부러 그런 것이라네. 도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니 원망치 말도록.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내지 않았다. 마치 손으로 허공에 그림을 그려도 허공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 일세. 아르하트의 마음도 이와 같아 모든 법칙 한가운데 있어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대의 예

150) l'oreiller, the pillow, *bimbohana*, 枕

151) *Vinaya*, II, p. 286 참조: *apattañ ca sīsaṃ. bimbohanam. bhūmito ca pādā muttā*. TTr.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가 베개에 부딪히는 사이에. 이 기이한 세부 사항은 거의 모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Légende d'Asoka(Concile, p. 36)*; *Mahīśāsaka Vinaya(p. 140)*, *Dharmagupta Vinaya(p. 175)*, *Mahāsaṃghika Vinaya(p. 208)*, *Mūlasarvāsyivādin Vinaya(Rockhill, Life, p. 156)*.

152) la concentration semblable au diamant, the diamond-like(vajra) *samādhi*, *vajrasamādhi*, 金剛定

153) les trois sciences, the three knowledges(*vidya*), 三明

154) les six supersavoirs, the six super knowledges(*abhijñā*), 六神通

155) la délivrance totale, the complete liberation(*vimokṣa*), 共解脫

156) la force miraculeuse, the miraculous power, *ṛddhibala*, 大力

157) 아난다가 문이 닫힌 것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열쇠 구멍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 *Mahāsaṃghika Vinaya(Concile, p. 209)*.

전 자리로 돌아가라.”<sup>158)</sup>

이때 상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왓빠띠는 니르바나에 들었다. 다른 누가 법장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룻다가 말했다. “장로 아난다가 있지 않습니까. 붓다의 제자 가운데 아난다는 늘 붓다를 곁에서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는 경을 듣고 기억하여 붓다는 끊임없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아난다가 경장을 결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마하까샤가 아난다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했다. “붓다는 그대에게 법장을 보존할 것을 명하였으니, 그대는 당연히 붓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붓다가 처음으로 법칙을 설한 곳은 어디인가? 법장을 수호할 수 있는 위대한 제자들은 모두 니르바나에 들어, 오직 그대만 남았으니. 붓다의 생각을 따르고 존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경장을 결집해야 해.”

그러자 아난다는 상가 앞에 예배하고 사자좌에 앉았다. 이에 위대한 까샤빠가 계송을 읊었다.

사자들의 성스러운 왕인 붓다  
붓다의 아들인 아난다  
사자좌에 앉아 상가를 바라보아도,  
붓다는 이미 가고 없네.

이처럼 붓다를 여인,  
성인들의 상가 역시 그 힘 잃으니,  
이처럼 달 사라진 밤에,  
위엄 잃은 별자리들<sup>159)</sup>이라.

그대 현인이여! 말해보라!  
붓다의 아들이여,  
붓다가 처음 설한 곳은 어디인지  
그대가 말해주어야 하나니  
그 모습을 일깨워다오.

이때 장로 아난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붓다가 니르바나에 든 곳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붓다, 처음으로 법칙 설한 때,  
나는 그 모습 보지 못하였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러하오:  
붓다는 바라나시에 머물렀다.

붓다는 다섯 빅슈를 위하여  
처음으로 감로의 문을 열었다.

---

158) *Kia ye kie king(Concile, p. 15)*와 *Mahāsamghika Vinaya(Concile, p. 209)* 두 경전 모두에서 까샤빠가 아난다에게 사과하고 있다.

159) les constellations, this constellatons, 宿

붓다, 네 가지 진실 설하였다.  
고통의 진실, 그 근원의 진실, 고통 소멸의 진실 그리고 도의 진실을.

아즈냐따 카운디냐(아야교진여),<sup>160)</sup>  
누구보다 먼저 도를 보게 되고  
팔천의 천신 무리  
그 뒤를 이어 도에 들었다.

일천 아르하트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일곱 그루의 딸라 나무<sup>161)</sup> 높이의 허공에 올라 말하길,  
“아! 무상의 위력은 대단하도다. 우리 눈앞에서 붓다가 법칙을 설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이제  
그대가 말하고 우리가 들어야 한단 말인가?” 하면서 다음의 계송을 읊었다.

우리가 본 붓다의 자태,  
그것은 마치 보랏빛 산 같았도다.  
그 오묘한 자태의 공덕은 간 곳 없고,  
남은 것은 오직 이름뿐이라.

그런 연유로 모든 방편 다해,  
모든 선한 뿌리 열심히 쌓으려 정진하면서  
삼계를 벗어나려 애써야 하리.  
니르바나가 최상의 행복이니.

이때 장로 아니룻다가 이 계송을 읊었다.

아! 세상 무상하기는,  
(물에 비친) 달과 파초 같도다.  
그 공덕이 세 세상을 가득 채워도  
무상의 바람으로 무너져버렸도다.

그러자 위대한 까샤빠가 다시 계송을 읊었다.

무상의 힘은 대단하오.  
어리석은 자와 현자, 빈곤한 자 혹은 부자,  
도를 구한 자 혹은 찾지 못한 자,  
어느 누구도 이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리.

듣기 좋은 말과 교묘한 보석도,  
거짓말도, 강한 맹세도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  
불이 만물 사르듯,

---

160) Ājñāta Kauṇḍinya, 阿若憍陳如

161) les arbres *to lo, to lo(tāla)* trees, 多羅樹

무상법도 이와 같도다.

위대한 까샤빠가 아난다에게 말했다.<sup>162)</sup> “『전법륜경』<sup>163)</sup>으로부터 『대반열반경』<sup>164)</sup>까지 모두 담아 네 아가마<sup>165)</sup>를 짓자. 즉 1. 『증일아함』<sup>166)</sup>, 2. 『중아함』<sup>167)</sup>, 3. 『장아함』<sup>168)</sup> 4. 『상응아함』<sup>169)</sup>을 통합하여 이를 경들의 법장<sup>170)</sup>이라 부르도록 하자.<sup>171)</sup>

[비나야 결집]

위대한 아르하트들이 또 물었다. “누가 명확히 비나야의 법장을 결집할 수 있겠소?”

모두가 말하길, “장로 우빨리<sup>172)</sup>가 있습니다. 오백 아르하트 가운데 비나야를 지키는데 최

162) 이 장의 마지막은 불전 결집에 할애하고 있다. 경전 혹은 경전의 형성은 이전부터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목록은 Winternitz, *Literature*, II, p. 1, n. 1과 Lav., *Dogme et philosophie*, p. 198에서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빠알리 경전 연구가 Rhys Davids와 Oldenberg가 마련한 토대를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S. Lévi, *Observations sur une langue precanonique du Bouddhisme*, JA, Nov.-Dec. 1912, p. 511; Przulski, *Concile*, p. 333~365; F. Weller, *Die Ueberlieferung des allteren buddhistischen Schrifttums*, AM, V, 1928-39, p. 149~182; A. B. Keith, *The Home of Pāli*, BS, XXXI, p. 747을 볼 것.

결집 과정에서 드러난 문헌 작업과 관련한 출전들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출전들의 차이를 연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a. 기록들은 두 분야 즉 다르마와 비나야로 분류 가능하다. 우빨리가 비나야를, 아난다가 수뜨라를 암송한다(*Vinaya Pāli et Vinaya des Mahīśaka* in Przulski, *Concile*, p. 143~147. - 장로들이 아난다로부터 아가마를 전수받고 그 규율과 법칙을 기록한다(ib., p. 85~86) - 아난다가 다르마빠따까를 그리고 우빨리가 비나야빠따까를 암송한다(*Vin. des Mahāsāṃghika* p. 211~216).

b. 이 두 경전에 論母(*mātrka*)와 교의 문답이 추가된다. - 먼저 아난다가 다르마빠따까를 암송하면, 우빨리가 비나야빠따까를 암송하고 이어서 까샤빠가 논모를 암송한다(*Légende d'Asoka*, ibid. p. 39~45).

c. 기록들은 트리빠따까로 분류되나 그 차례와 암송자는 불확실하다. - 우빨리가 비나야를, 아난다가 수뜨라와 아비다르마를 암송한다(*Sarvāstivādin Vinaya*, p. 227~231; *Dharmagupta Vinaya*, p. 187~195; Mppś).

163) Tchouan fa louen king, Tchouan fa louen king, Dharmacakrapravartanasūtra, 轉法輪經

164) Ta pan nie p'an, the Ta pan nie p'an, Mahāparinirvāṇasūtra, 大般涅槃

165) les quatre A han, the four A han (Āgama), 四阿含

166) Tseng yi a han, Ekottarāgama, 增一阿含

167) Tchong a han, Madhyamāgama, 中阿含

168) Tch'ang a han, Dīrghāgama, 長阿含

169) Siang ying a han, Saṃyuktāgama, 相應阿含

170) la Corbeille de la loi des Sūtra, the Basket of the Dharma of the Sūtras, *sūtrapīṭaka*, 法藏

171) 몇몇 저자들은(S. Lévi, *Les seize Arhat*, JA, 1916, p. 31~32; J. Przulski, *Concile*, p. 352 sq) 아가마 인용 순서를 중시한 듯하다. 여기에 머리글자에 따라 아가마가 제시된 목록을 나열해본다 (D=Dīgha; M=Madhyama; S=Saṃyukta; E=Ekottara; K=Kṣudraka): M-D-E-S, in *Mahāparinirvāṇasūtra*, T 6, k. 2, p. 191 a.

S-D-M-E, in *Mūlasarvāstivādin Vinaya*, T 1451, k. 39, p. 407 b~c.

E-M-D-S, in Mppś 및 *Tchouan tsi san tsang*, T 2026, p. 3 b. [Mppś는 사대 아가마만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아래 k. 5, p. 99 b에서 언급할 쿿다까(Kṣudraka, 소부)를 인지하고 있다.

S-M-D-E, in *Asaṅga's Yogacaryābhūmi*, T 1579, k. 85, p. 772 c.

D-M-S-E-K, in *Pāli canon*(cf. *Atthasālini*, p. 25~26; tr. Tin, *Expositor*, I, p. 31~32; *Mahīśāsaka Vinaya*, T 1421, k. 30, p. 191 a; *Mahāsāṃghika Vinaya*, T 1425, k. 32, p. 491 c.

D-M-E-S-K, in *Dharmagupta Vinaya*, T 1428, k. 54, p. 968 b; *P'i ni mou lourn of the Haimavata school*, T 1463, k. 4, p. 818 a; *the relation of Nandamitra*, in S. Lévi, *Les seize arhat*, p. 20.

E-M-D-S-K, in Fen pie kong tö king(Przulski, *Concile*, p. 119).

고입니다. 그에게 청해봅시다.” 그래서 즉시 이런 말로 그를 청했다. “일어나 사자좌에 앉아 붓다가 어디에서 처음으로 비나야를 설하고 계를 결집하였는지 말해주시오.” 사자좌에 앉은 그가 말했다.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습니다. 한때 붓다는 바이살리<sup>173)</sup>에 계셨습니다. 이 무렵 깔란다<sup>174)</sup> 집안의 장자 수디나<sup>175)</sup>가 처음으로 음욕을 범했습니다.<sup>176)</sup> 이를 기화로 첫 대죄를 결정하였습니다.”

(1-3) 삼부<sup>177)</sup>로 나누어진 이백오십 계<sup>178)</sup>에 관한 설명, (4) 칠법,<sup>179)</sup> (5) 팔법,<sup>180)</sup> (6) 빅슈니비나야,<sup>181)</sup> (7) 증일,<sup>182)</sup> (8) 우바리문,<sup>183)</sup> (9) 잡부,<sup>184)</sup> (10) 선부<sup>185)</sup>까지 더하여 팔십 부 비나야빠따까<sup>186)</sup>가 이루어졌다.<sup>187)</sup>

[아비다르마 결집]

모든 아르하트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논장<sup>188)</sup>을 명확히 결집할 수 있는가?” 그

172) *l'āyusmat Yeou p'o li, the āyusmat Yeou p'o li*(Upāli), 憂婆離

173) *P'i chō li, Vaiṣālī*, 毘舍離

174) *Kia lan t'o, Kalanda*, 迦蘭陀

175) *Siu t'i na, Sudinna*, 須提那

176) 수디나의 과오에 관해서는 *Vinaya*, III, p. 10~21(tr. Horner, I, p. 21~38); *Wou fen liu*, T 1421, k. 1, p. 2 b; *Sseu fen liu*, T 1428, k. 1, p. 569 c; *Che song liu*, T 1433, k. 1, p. 1 a를 볼 것.

177) trois sections, three sections(*varga*), 三部

178) 250 défenses, 250 Precepts, *pañcaśaddviśataśīlasamprayuktakārtha*, 二百五十戒

179) les Sept préceptes, the Seven Precepts, *saptadharmā*, 七法

180) les Huit préceptes, the Eight Precepts, *aṣṭadharma*, 八法

181) *le Pi k'ieou ni p'i ni, the Pi k'ieou ni pi ni, bhikṣuṇīvinaya*, 比丘尼毘尼

182) *le Tseng yi, the Tseng yi, Ekottara*, 增一

183) *le Yeou p'o li wen, the Yeou p'o li wen, Upāliparipricchā*, 憂婆利問

184) *le Tsa pou, the Tsa pou, Kṣudrakavarga*, 雜部

185) *le Chan pou, Kuśalavarga*, 善部. 영역에는 누락됨.

186) la Corbeille de la discipline, the Basket of the Discipline, *vinayapiṭaka*, 毘尼藏

187) 이미 몇 차례 밝힌바, 아난다가 막연히 비나야를 언급하는 경우, 그것은 대부분 설일체유부 비나야에 근거한다. *Che song liu*(十誦律)라는 제명의 이 한역은 404년 Punyatara에 의해 시작하여 Mppś역자 꾸마라지바에 의해 지속되고 '비마라차(Vimalākṣa, 毘摩羅叉)'에 의해 완성되었다(Bagchi, I, p. 177 참조).

Mppś와 *Che song liu* 두 역서 모두 꾸마라지바가 번역한 것으로 Mppś의 율장을 분석해보면 *Che song liu*의 내용 목록을 있는 그대로 단순 재현하고 있음에 놀랄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는 이 율장의 각 장(chapitre, 편) 목록을 부(*pou*, *varga*, 品)라 칭한다. Mppś가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은 *Che song liu*(T 1435, tome 23<sup>e</sup>)의 내용과 주요 부분과의 비교로 충분히 검증된다.

Song 1~3: 무제이지만 이백오십 금지 사항 설명에 할애되어 있다. p. 1

Song 4: Ts'i fa(*Saptadharmā*) p. 148

Song 5: Pa fa(*Aṣṭadharma*) p. 206

Song 6: Tsa song(*Kṣudrakaparivarta*) p. 257

Song 7: Ni liu(*Bhikṣuṇīvinaya*) p. 302

Song 8: Tseng po li wen fa(*Upāliparipricchā*) p. 346

Song 10: Chan song(*Kuśalaparivarta*) p. 379

Mppś의 '부(*pou*)'는 이 '십 송(*song*)'과 상응하고 “이 팔십 부(*pou*)가 율장을 형성한다.”라는 문장으로 끝난다. 여기서 '팔십'이란 수는 명백한 오류이며 '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이 오류는 쉽게 설명된다. 왜냐하면 Mppś(k. 100, p. 756 c)의 다른 구절을 통해, 『本生譚(*Jātakas*)』과 『譬喻經(*Avadāna*)』을 거부한 카시미르(Kashmir) 지역 비나야는 오직 십 부(*pou=varga*)로 구성되어 있지만, 팔십 장으로 구성된 그 주석서 毘婆沙(*Vibhāṣā*)가 하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본생담』과 『비유경』을 수록한 마투라(Mathurā) 지역 율장은 팔십 부로 구성되어 있다. Cf. Przyluski, *Aśoka*, p. 214~215; *Fables in the Vinaya-Piṭaka of the Sarvāstivādin School*, IHQ, Vol. V, p. 1~5. 다른 출전들은 율장을 매우 다르게 분석한다. Przyluski, *Concile*, p. 409를 볼 것.

들은 생각해 보았다. “오백 아르하트 가운데 장로 아난다가 수뜨라의 의미를 가장 풀어낼 줄 아니 그를 청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난다를 청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일어나 사좌자<sup>189)</sup>에 앉아 붓다가 처음으로 아비다르마를 설한 곳을 말해주시오.”

상가의 명을 받들어 아난다는 사좌자에 앉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 한때 붓다가 슈라바스티에 계셨다. 그때 붓다가 빅슈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섯 두려움<sup>190)</sup>과 다섯 죄,<sup>191)</sup> 다섯 증오<sup>192)</sup>가 소멸하여 꺼지지 않은 사람은 이를 인연으로 이승에서 몸도 마음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후세에서도 악도<sup>193)</sup>에 빠지리라. 다섯 두려움과 다섯 죄, 다섯 증오를 버린 사람은 이를 인연으로 이승에서도 가지가지로 몸도 마음도 행복하여 후세에서는 하늘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그렇다면 피해야 할 다섯 두려움이란 무엇인가?<sup>194)</sup> 1. 죽임<sup>195)</sup> 2. 도둑질<sup>196)</sup> 3. 사음<sup>197)</sup> 4. 거짓말<sup>198)</sup> 5. 음주<sup>199)</sup>니라.<sup>200)</sup> 이 모든 것을 일러 아비다르마 삼법장<sup>201)</sup>이라 하느니라.”

[70 a] 삼법장이 결집 되자 천신, 아수라, 용, 여신들<sup>202)</sup>이 각종 공양물을 바치고 하늘 꽃<sup>203)</sup>, 향<sup>204)</sup>, 깃발<sup>205)</sup>, 장막<sup>206)</sup>, 천의<sup>207)</sup> 등을 내려 보내니 바로 법공양을 위함이라. 그러면

188) la Corbeille de l'A p'i t'an, *Abhidharmapiṭaka*, 阿毘曇藏

189) le siège du lion, the lion-seat, *siṃhāsana*, 獅子座

190) les cinq frayeurs, the five fears, *bhaya*, 五怖

191) les cinq péchés, the five sins(*āpatti*), 五罪

192) les cinq haines, the five hatreds(*vaira*), 五怨

193) les destinées mauvaises, the bad destinies, *durgatī*, 惡道

194) Mppś에서 오제의 내용이 다섯 두려움(五怖)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195) Le meurtre, the murder, *prāṇātipāta*, 殺

196) le vol, theft, *adattādāna*, 盜

197) l'amour illicite, the illicit sexual relationships, *kāmamithyācāra*, 邪婬

198) le mensonge, the falsehood, *mṛṣāvāda*, 妄語

199) l'usage de boissons, the alcoholic drinks, *madhyapāna*, 飲酒

200) 아난다의 이 논장(*Abhidharmapiṭaka*) 암송은 설일체유부의 비나야로부터 원문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Che song liu*, T 1435, k. 60, p.449 a(tr. in Przyluski, *Concile*, p. 231). 이를 전거로 삼으면, 붓다는 아비다르마를 사위국(*Śrāvastī*)에서 처음 설했다. *Āṅguttara*, III, p. 204~205에 의하면 붓다가 여기서 문제된 다섯 두려움을 풀이한 것은 아나타뽀디까(*Anāthapiṇḍika*)의 제따와나(*Jetavana*)에서 였다:

*Pañca, gahapati, bhayāni verāni appahāya dussilo iti vuccati nirayaṇ ca upapajjati. Katamāni pañca? Pañātipātaṃ adinnādānaṃ kāmesu micchācāraṃ musāvādaṃ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aṃ. Imāni kho, gahapati, pañca bhayāni verāni appahāya dussilo iti vuccati nirayaṇ ca upapajjati.* TTr. 거사여 다섯 두려움과 원한을 끊지 못하면 그를 범계자라 하며 또한 지옥에 다시 태어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죽임,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가 그것이다. 거사여 다섯 두려움을 끊지 못하면 그를 범계자라 하며 그는 다시 지옥에 태어난다.

*Pañca, gahapati, bhayāni, pahāya silavā iti vuccati sugatiṇ ca upapajjati. Katamāni pañca? Pañātipātaṃ adinnādānaṃ kāmesu micchācāraṃ musāvādaṃ surāmerayamajjapamādaṭṭhānaṃ Imāni kho, gahapati, pañca bhayāni verāni pahāya silavā iti vuccati sugatiṇ ca upapajjati.* TTr. 거사여, 다섯 두려움과 원한을 끊으면 그는 지계자라 하며 또한 선취(善趣)에 다시 태어나리라. 이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죽임,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가 그것이다. 거사여, 다섯 두려움과 원한을 끊으면 그를 지계자라 하며 또한 그는 선취에 다시 태어나리라.

착오가 아니라면 이 경과 일치하는 한역 아함은 없다. 빠알리 앙굿따라에 의하면 다른 부파에서 주장한 법문을 논장에 포함시켜 니까야로 분류할 수 있다.

201) la Corbeille d'Abhidharma, the Basket of the Abhidharma, *abhidharmapiṭaka*, 阿毘曇藏

202) les Devī, the devis, 天女

203) les fleurs célestes, the celestial flowers(*puṣpa*), 天華

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설했다.

세상 긍휼히 여겨,  
삼법장 결집이 이루어졌도다.  
십력 아우르는 일체지,  
그 말씀 지혜는 무지를 깨는 등불.

[팔건도아비다르마와 육분아비다르마 결집]

물음: 『팔건도아비다르마』,<sup>208)</sup> 『육분아비다르마』,<sup>209)</sup>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다르마들의 기원은 무엇인가?

답: 1. 붓다가 이 세상에 생존했을 당시는 법칙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붓다의 입멸 후 그리고 처음 법칙을 결집할 때도 사정은 붓다 생존 시와 같았다. 백 년이 지나 아쇼카왕이 오 년마다 개최하는 무차대법회<sup>210)</sup>에 오백 대법사들이 모여 논쟁을 벌였다.<sup>211)</sup> 하지만 그 의견이

204) les parfums, the perfumes, *gandha*, 香

205) les bannières, the banners, *patākā*, 幡

206) les parasols, the parasols, *chattra*, 蓋

207) les vêtements célestes, the heavenly garments(*vastra*), 天衣

208) Pa kien tou a p'i t'an, Aṣṭagranthābhidharma, 八韃度阿毘曇

209) Lieou fen a p'i t'an, Ṣaṭpādābhidharma, 六分阿毘曇

Przyluski, *Concile*, p. 72의 번역: '여덟 구성요소(eight hien tou, *khaṇḍa*)로 이루어진 아비다르마 및 여섯 부로 이루어진 아비다르마'. 여기에 제시된 여섯 산스크리트 제명의 정당성을 뒤에서 보게 될 것이다.

210) une grande assemblée du quinquennal, a great assembly of five hundred, *pañcavaśapariṣad*, 般闍于瑟大會

211) 제이차 결집을 암시함과 동시에 두 부파의 성립에 이른 첫 교의 분열 즉 상좌부(Sthaviravāda) 대 대중부(Mahāsāṃghika)의 분열을 암시한다. Mppś 내용은 엄밀히 대중부의 카슈미르(Kashmir) 전통에 의거한다.

1° 『大毘婆沙論(Mahāvibhāṣā)』, T 1545, k. 99, p. 510 c ~ 512 a.

2° 바수미트라(Vasumitra, 世友)의 『異部宗輪論(Samayabhedaparacanacakra)』, T 2031, p. 15 a~b(tr. J. Masuda, in *Asia Major*, II, 1925, p. 14~15); T 2032, p. 17 b~c; T 2033, p. 20 a~b.

3° 앞의 논서에 대한 빠라마르따(Paramārtha, 眞諦)의 주석. 그 주석 일부가 San louen hiuan yi de Ki tsang(T 1852, p. 8 b~c) 및 Sanrongengi kenyūshū de Chūkan(T 2300, p. 455 b ~ 456 b) 및 폴 드미에빌 번역의 『불교 부파의 기원(L'origine des sectes bouddhiques)』, MCB, I, 1931~32, p.30~40에 실렸다.

4° 현장(Hiuan tsang)의 『大唐西域記(Si yi ki)』(T 2087, k. 3, p.886 b; tr. Beal, I, p. 150~151; tr. Watters, *Travels*, I, p. 267~269)『阿毘達磨大毘婆沙論(Mahāvibhāṣā)』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저술. 폴 드미에빌은 이 전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교의 논쟁을 야기한 이교의 시조 마하데와(Mahādeva, 大天)로 인해 발생한 교단의 상좌부(Sthaviras)와 대중부(Mahasāṃghikas) 대립은, 붓다 니르바나 후 백 십 육 년이 지난 아쇼카왕 치하 빠탈리뿌트라(Pātaliputra)에서 열린 제이차 결집 시기에 이르러서야 일어난 일이다. 대중부는 두 가지 비정통 주장을 펼쳤다. 하나는 대승 경전을 트리빠까에 포함시키자는 것, 다른 하나는 아르하트 혹은 豫流(*srota-āpanna*), 오염된 육신을 지닐 정도로 역량이 부족하고, 의혹과 어느 정도 무지를 지닌 자 등 불안정한 다섯 가지(五事)를 지닌 존재들도 성인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大毘婆沙論』에 의하면 아쇼카왕은 마하데와에게 유리하게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빠라마르따는 이 군주에 대해 경건한 기억을 남기려 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이교의 시조에 대항하는 적대 세력을 갠지스강에 빠트리려 한 것은 연인 마하데와에게 속은 왕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마력으로 카슈미르로 도피하자 왕은 그들을 찾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毘婆沙論』에 의하면 이들은 카슈미르를 떠나길 거부했다(이곳에서 『毘婆沙論』이 저

술되었다고 전해지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 빠라마르따에 의하면 결국 이들은 아쇼카왕의 초대를 수락하여 빠팔리뿌뜨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마하데와가 사망하자 두 부파가 결합하여 새로운 결집 회의를 구성하여 저 유명한 오사를 정화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시기에 진정한 부파의 분열이 성립되었다고 빠라마르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Walleser의 저술(*Sekten des alten Buddhismus*, Heidelberg, 1927) 마지막 부분(p. 78~93)에 번역된 청변의 *Sde pa tha dad par hbyed pa sañ rban par bsad pa*(Bstan-ḥgyur, Mdo ḥgrel, XC, 12)는 두 전통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난다(Nanda) 왕과 마하빠드마(Mahāpadma) 왕 치세 기간, 니르바나 이후 백삼십칠 년째 되던 해, 마하데와의 오사에 관한 결집 회의가 빠팔리뿌뜨라에서 열려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로 치달았다(Walleser, p. 81~82) — 니르바나 후 백육십 년째 되던 해 다르마쇼까(Dharmāśoka) 치하의 빠팔리뿌뜨라(Pāṭaliputra)에서 [마하데와의 오사에 관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상가에서 대중부와 상좌부의 분열이 야기되었다(ibid, p. 78).

현재까지 취합된 출전들은 내가 기꺼이 카슈미르 전통이라 불러도 될지 모르는, 비교적 동질적인 하나의 무리를 구성한다.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이 무리는 바이살리(Vaiśālī) 승려들이 기본 계율에 도입한 열 가지 개혁(十事, *dasa vatthūṇi*)을 비난하고자 개최된 제이차 결집 관련 전통들 가운데 또 다른 무리가 존재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가이거(W. Geiger)의 *Mahāvamsa*, p. LIV~LVI 서문 그리고 푸생의 ERE, IV, p. 179~185, art. *Councils*에 수록된 근거 자료들은 현시점에서 이 문제에 관련하여 어떠한 충분한 사실도 알려주지 못한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a. 바이살리 결집 회의는 니르바나 후 백 년째 되는 해에 열렸다. *Pāli Vinaya*, II, p. 294~307(tr. Rh. D.- Oldenberg, III, p. 386~414; *Muséon*, 1905, p. 258~312); *Wou fen liu*, T 1421, k. 30, p. 192 a~194 b; *Mo ho seng k'i liu*, T 1425, k. 33, p. 493 a~c(연대 미상); *Sseu fen liu*, T 1428, k. 54, p. 968 c~ 971 c; *Samanatpāsikā*(in *Vinaya* III, p. 294 sq, *Chan kien liu p'i p'o cha*, T 1462, k. 1, p. 677 c); *P'i ni mou king*, T 1463, k. 4, p. 819 b; *Fa hien tchouan*, T2085 (tr. Legge, p. 75).

b. 바이살리 결집 회의는 니르바나 후 백십 년째 되는 해에 열렸다. *Che song liu*, T 1435, k. 60-61, p. 450 a ~ 456 b; *Ken pen chou... tsa che*, T 1451, k. 40, p. 411 c~414 b, *Tibetan correspondent in Dulwa*, XI, p. 323330, 이 저술에 Bu ston(Obermiller), II에 번역된 내용이 실림, p. 91~96; *Tāranātha*, p. 41~42(날짜들을 다르게 상정함); Hiuan tsang, *Si yu ki*, T 2087, k. 7, p. 909b(tr. Beal, II, p. 74~75; tr. Watters, *Travels*, II, p. 73-77).

c. 싱할라 연대기에 의하면, 제이 결집은 깔라쇼까(Kālāśoka) 치하, 니르바나 후 백 년째 되는 해에 열렸다(*Dīpavaṃsa*, IV, v. 44, 47; *Mahāvamsa*, IV, v. 8, *Dīpavaṃsa* (V, v. 3039). 이 결집에서 축출당한 왓지인들(Vrjiputrakas)은 자신들 나름대로 대규모 결집을 감행하였는데, 이로부터 대중부가 출현하였다. — 싱할라 출전들은 니르바나 후 이백삼십육 년째 즉 아쇼까 통치 십칠 년째 되는 해 빠팔리뿌뜨라에서 띠싸 목갈리뿌따(Tissa Moggaliputta) 주재로 열린 제삼차 결집을 기록한 유일한 출전들이다(*Dīpavaṃsa*, VII, v. 34~59). 띠싸는 장로들에게 *論事*(Kathāvatthu)를 수용케 하고(*Dīpavaṃsa*, VII, v. 41, 56~58; *Mahāvamsa*, V, v. 278) 포교를 위해 이들을 곳곳으로 보냈다.

카시미르 전통을 바이살리 결집 관련한 전통과 비교하면, a와 b에 나열된 출전들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지만, 카시미르 전통이 싱할라 연대기와의 접점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1° 싱할라 연대기는 위대한 왕조 치하에서 산스끄리트 설일체유부가 누리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아쇼까 치하의 띠싸 목갈리뿌따에게 부여한다(cf. Lav., *Histoire*, II, p. 137; Przyluski, *Aśoka*, s.v. Upagupta).

2° 싱할라 연대기의 목갈리뿌따는 아쇼까에게 붓다가 분별론자(vibhajyavādin)였음을 설득하려 노력하였다(*Mahāvamsa*, V, v. 271; *Kathāvatthu* 주석, in Aung, *Points of Controversy*, p. 7). 빠알리 언어학파를 대표하는 분별설부(分別說部, Vibhajyavāda)는 매우 미묘한 차이에 의거하여 과거 일체가 아니라 어떤 과거의 존재를 수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산스끄리트 언어학파를 대표하는 설일체유부가 과거를 포함한 삼세의 존재를 수용하는 것과 대립한다. 설일체유부가 자신들의 아비다르마에서 삼세의 존재를 논할 때 이들은 마우드갈라야아나(目犍連, Maudgalyāyana)라 불린 분별론자를 적으로 상정한다(Lav., *La controverse du Temps et du Pudgala dans le Vijñānakāya*, EA, I, p. 343 참조). 산스끄리트 출전의 마우드갈라야아나는 아마도 빠알리 출전의 목갈리뿌따(Moggaliputta)일 것이다(cf. Lav., *Histoire*, II, p. 138).

3° 싱할라 연대기 목록은 두 아쇼까 왕 치하의 서로 다른 결집을 기록하고 있다. 목록은 i)



분분하여 각 부파의 명칭이 발생하고 발전해갔다.<sup>212)</sup> 결국 까뜨야야나<sup>213)</sup>라는 브라흐만 교인이 등장하게 된다. 지혜롭고 영리한 그는 트리빠따까와 내외 경전<sup>214)</sup>에 완벽히 통달하여 붓다의 말을 해석하고자 하여 『발지경팔건도』<sup>215)</sup>를 지었다.<sup>216)</sup> 첫 품은 세간 최상법<sup>217)</sup>을 다루고

Dīpavaṃsa에 출현하는 깔라쇼까(Kālāsoka) 왕 치하, 밧지뵤따까(Vajjiputtakas, 跋道子)의 대합송(大舍誦, mahāsaṃgīti)에 이어지는 바이샬리 결집(니르바나 후 백 년째 해) ii) 아쇼까 왕 치하 빠딸리뿌뜨라 결집(니르바나 후 이백삼십육 년째 해). — 적어도 바수미뜨라의 논서에 관한 빠라마르따의 주석에 소개된 카시미르 전통의 일부 역시 니르바나 백 년 후 그 아쇼까 왕 치하 열렸던 두 결집을 언급하고 있다: 오백 아르하트들이 카슈미르로 떠나기 전 열린 결집 및 빠딸리뿌뜨라로 귀환 후 열린 결집(P. Demiéville, L'origine des sectes bouddhiques, p. 21 참조).

4° 카시미르 전통에서의 마하데와의 오사에 관한 논의는 *Kathāvatthu*, II, 1~6(ed. Taylor, I, p. 163~204)에서 다루어진다. Cf. L. de La Vallée Poussin, *The Five Points of Mahādeva and the Kathāvatthu*, JRAS, 1910, p. 413~423)

212) 부파의 발전과 관련한 연구들: W. Geiger, *Mahāvamsa*, App. B, p. 276~287; R. Kimura, *Intro. to the Hist. of Early Indian Buddhist Schools*, Calcutta, 1925; M. Walleser, *Die Sekten des alten Buddhismus*, Heidelberg, 1927; J. Masuda, *Origin and Dictrines of Early Indian Buddhist Schools*, Asia Major, II, 1925, p. 1~78; P. Demiéville, *L'origine des sectes bouddhiques d'après Paramārtha*, MCB, I, 1931~21, p. 15~64.

213) *Kīa tcham yen*, Kātyāyana, 迦旃延

214) les textes de l'intérieur et de l'extérieur, the inner and outer texts, *ādhyātmikabāhyasūtra*, 內外經書

215) *Fa tche king pa kien tou*, Jñānaprasthānāṣṭagrantha, 發智經八捷度

216) 까뜨야야나에 관한 전통은 복잡하다:

a. 마하까뜨야야나는 붓다의 위대한 대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붓다의 간략한 경구들 전체를 상세히 설명하는 데 으뜸이었다(Āṅguttara, I, p. 23: *aggo saṅkhittena bhāsitasavivithārena attham vibhajantānam*. 그는 옷자이니(Ujjayini) 출신이며 아완띠(Avanti) 제자였다(Theragathā, v. 496~501; Rh. D., Brethren, p. 238~239 주석; Manoratha, I, p. 204~209).

이와 일치하는 정보에 의거해 그를 『藏釋論(Petakopadesa)』의 저자로 추정할 수도 있다: 『간다왕사(Gandhavamsa)』(『빠알리文聖書史』, p. 59)는 그 저자로 마하까뜨야야나를 상정한다. — Mppś, k. 2, p. 70 a 20~23은 이렇게 말한다: “까뜨야야나는 붓다의 일생을 통해 붓다의 말씀을 설명하고 진나라 말로 藏(box-collection)을 뜻하는 昆勒(Pi le, petaka)을 지었는데 아직도 남인도에서 사용된다.” — *Paramārtha*(in P. Demiéville, *Origine des sectes*, p. 49~50): “붓다 생존 시 마하까뜨야야나는 붓다의 아가마-수뜨라를 풀이하기 위해 논서들을 해설하였다.” 이 역시 『藏釋論』 및 『阿毘達磨發智論(Abhidharmajñānaprasthāna)』과 관련이 있다.

[『藏釋論』은 저명한 저술이다. R. Fuchs, *Specimen des Petakopadesa*, Berlin, 1908. E. Hardy, *Nettipakaraṇa*, p. VIII sq., 참조: “이것은 C.E. 초기의 저작이며, 반(半)경전적 저작이다. 싱할라 전통은 외경에서 이를 제외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Mppś는 이를 아비다르마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불자들 역시 쿿다까니까야(Khuddakanikāya) 경전 장서에 *Pettipakarāṇa*, *Suttasaṃgaha*, *Milindapañha*를 포함시키고 있다(M. Bode, *Pāli Literature of Burma*, London, 1909, p. 4 sq. 참조). 『藏釋論』은 붓다고사의 *Visuddhimagga*와 우빠띠싸(Upatissa, 사리뿌뜨라의 이명)의 『解脫道論(Vimuktimārga)』의 토대를 이루는 출전이다(P. V. Bapat, *Vimuttimaggā and Visuddhimaggā*, Poona, 1937, p. XXV 참조). — 헬머 스미스(Helmer Smith)의 증언 (Przyluski, *Concile*, p. 73, n. 6), 실론에서는 아직도 『藏釋論』이 사용되고 있다.]

b. 『發智論(Jñānaprasthāna)』 저자 까뜨야야나. — 『發智論』 역시 Mppś(p. 70 a 10~12)의 내용을 전한다. 아쇼까 결집 이후, 그 추론에 의하면 니르바나 이백 년 후 까뜨야야나가 『發智論』을 저술했다. 이 날짜는 빠라마르따에 의해 확인된다(Demiévills, p. 50). 이에 의하면 “이백 년 후 까뜨야야나가 Anavatapta 호수를 떠나 마가다국에 입성, 대중부 강원에 입학하여 트리빠따까의 신성한 법칙과 관련한 탁월함을 정립하였다...; 그의 법칙을 수용한 자들은 탁월함을 선언하는 학파라 불리는 학파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마하까뜨야야나의 제자들이었지만 순수한 설일체유부 신봉자였다”고 전한다.” 실제로 까뜨야야나는 대중부가 아니라 설일체유부 논사였다. 빠라마르따는 까뜨야야나를 붓다 니르바나 후 삼세기 초 형성된 설일체유부의 기원과 연관시키며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수정하게 된다. 그가 『發智論』을 저술했으나 그 출전들의 기원 장소와 저술 시기가 설일체유부 관점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막 우리는 Mppś가 이 저술을 니르바나 이백 년 후 저술로 상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있으며, 이후 붓다의 제자들은 이를 토대로 『팔견도』<sup>218)</sup>(혹은 『발지론』<sup>219)</sup>)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후세 사람들을 위해 『위바사』를 지었다.<sup>220)</sup>

2.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육분아비담』<sup>221)</sup> 가운데, 팔장 제삼분은 「분별세처분」<sup>222)</sup>

다. - 『毘婆沙』(T 1545, k. 5. p. 21 c)에 의하면 “바단따(Bhadanta)[Kātyāyana]가 발지론을 저술 하였을 당시, 그는 동부(Orient)에 살았다. 동부에 알려진 다섯 강을 인용한[T 1544, k. 1, p. 918 c]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T 2087, k. 4, p. 889 c)에는 “니르바나 삼백 년 후 까뜨야야나 논사가 Tāmasavanad의 Bias강 우안 강둑 Cīnabhukti 부근에서 『發智論』을 저술하였다 (Watters, I, p. 294~295 참조). - 빠라마르따의 『바스반두의 생애(Life of Vasubandhu)』(T 2049, p. 189a): “설일체유부 학파의 까뜨야야나가 자기 학파의 아비다르마를 편찬하기 위해 오백 아르하트와 오백 보디사트와를 모아 카시미르로 간 것은 니르바나 후 오백 년 후였다.”; 이 편찬의 결과물이 『發智論』이라고도 불리는 『八伽蘭他(Aṣṭaḡrantha)』였다.

Mppś는 이 저술을 문자 그대로 『發智經八捷度(Fa tche king pa kien you)』로 상정한다. 프르질루스키가 밝히듯 엄밀히 말하자면 “팔견(kien)(93 및 9) 도(tou, khaṇḍa)로 구성된 『발지론』이다. 하지만 빠라마르따는 자신의 『바스반두 法師傳(Vie de Vasubandhu)』(T 2049, p. 189 a)에서 “견(5 및 10)과 도(tou)는 ‘k’ie lan t’a(9 및 5; 140 및 17; 9 및 3)’ 곧 ‘伽蘭他(ḡrantha)’에 해당함을 설명한다; 이러한 연유로 나[라모트]는 제명을 Jñānaprasthānaṣṭaḡrantha로 복원하였다. 현재로서는 ‘八捷度阿毘曇(Pa kien tou a p’i t’an, Aṣṭaḡranthābhidharma)’ 혹은 ‘팔 권으로 구성된 아비다르마’는 『발지론』의 동의어이다(cf. J. Takakusu, *Abhidharma Literature of the Sarvāstivādins*, JPTS, 1905, p. 82, n. 2; Lav. *Introduction to the Kośa*, p. XXX).

『발지론』은 야쇼미트라(Yaśomitra, 稱友)의 『俱舍釋(Kośavyākhyā)』에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p. 89~12, 52, 116, 157, 694); 이 인용들로부터 이 저술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으며 견도(捷度, skandhaka)들로 분할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두 한역본이 존재한다:

1. *A p’i t’an kien tou louen*(Abhidharmāṣṭaḡrantha), T 1543, AD 383, 洛陽에서 Saṃghadeva 와 Tchou fo nien 번역
2. *A p’i ta mo fa tche louen*(Abhidharmajñānaprasthānaśāstra), T 1544, AF 657 및 680, 洛陽에서 현장 번역(Bagchi, I, p. 161; II, p. 489 참조).

217) les suprêmes Dharma mondaines, the supreme worldly dharmas, *laukikāgradharma*, 世間第一法

『발지론』의 Laukiāgradharmas 이론에 관해서는 Lav., *Jñānaprasthānadp*에 인용된 *Pārāyana*(*Pārāyana* 참조, MI, II, p. 323-327; *Introd. to Kośa*, p. XXX.

218) Aṣṭaḡrantha, 八捷度

219) Jñānaprasthāna, 發智論

220) *Pi p’o so*, Vibhāṣā, 鞞婆娑

몇몇 자료들에 근거하면 『鞞婆娑』는 잘란다라(Jālandhara) 부근 쿠와나(Kuvana) 승원 혹은 카슈미르 부근 쿤달라와나(Kuṇḍalavana) 정사에서 가니슈카(Kaniṣka) 주도로 편찬되었다. 여기에 이 결집 관련 간략한 출전 목록을 제시한다.

중국 출전: Paramārtha, *Vie de Vasubandhu*, T 2049, p. 189a (tr: J. Takakasu, TP, 1910; - Hiuan tsang, *Sī yu ki*, T 2087, k. 3, p. 886 b ~ 887(tr. Beal, I, p. 151~155; tr. Watters, I., p. 270~78).

티베트 출전: Bu ston, II, p. 997(다양한 전통을 전한다); - *Taranātha*, p. 58~61; - Schiefner, *Tibetische Lebensbeschreibung*, p. 310.

저술: Kern, *Histoire*, II, p. 392~394; Manual, p. 121~122; J. Takakusu, JRAS, 1905, p. 415; JPTS, 1905, p. 123; V. Smith, *Early History of India*, Oxford, 1908, p. 230; Lav., *Histoire*, II, p. 326~327. 불명확한 전통에서 유래하는 이 혼란스러운 불서들은, 그 분명한 의도에서 드러나듯 카니슈카와 아쇼카를 대립시키고, 티사 모갈라뿌따(Tissa Moggalaputta)가 주재한 分別論者(Vibhajyavādins) 법회에 대응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루이 드 라 발레 푸앵의 말처럼 “카니슈카가 결집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회의가 개최된 적도 없는 것 같다.” Mppś에 이와 관련한 아무 언급이 없는 것도 일리가 있다. 어쨌든 『鞞婆娑』가 카니슈카 주도하에 까뜨야야나의 『발지론』 주석서로 저술된 것이라 해도, 현장의 한역 이백 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대비바사론』과는 별개임이 확실하다(T 1545). 사실 『대비바사론』은 우리에게 환관과 황소 이야기를 전하는바, 이 이야기는 “‘옛날’ 카니슈카 재위 기간에”라고 표현하고 있다(T 1545, k. 114, p. 593 a 참조).

221) 『六分阿毘曇(Lieou fen a p’i t’an, Ṣaṭpādābhidharma)』, *Kośavyākhyā*, p. 466에서 증명된 제명 『六分阿毘曇』은 『發智論』과 육부의 보유가 딸린 논서 제명이다(cf. *Kośa*, I, p. 4, n. 4). 산스크리트

이다. 이는 육분으로 이루어진 『누탄경』<sup>223</sup>의 제삼분으로 마우드갈리아야나<sup>224</sup>이 지은 것이다.<sup>225</sup> 아비다르마 육분 가운데 제일분 여덟 품의 첫 네 품은 바수미뜨라<sup>226</sup>가, 나머지 네 품은 카시미르<sup>227</sup>의 아르하트들이 지었다.<sup>228</sup> 그리고 나머지 오분은 다른 논사<sup>229</sup>들이 지은 것이다.

3.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붓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당시 붓다의 말을 해석하기 위하여 사리뿌뜨라가 아비다르마를 짓고, 이후 독자부<sup>230</sup> 논사들이 암송하여 지금에 이르니 이를 『사리뿌뜨라비다르마』<sup>231</sup>라고.

목록(*Kośavyākhyā*, p. 9), 티베트 목록(Buston, I. p. 49; Tāranāth, p. 296): 1. 바수미뜨라의 『중사분아비담론(Prakaraṇapāda)』, T 1541 및 1542; 2. 데와샤르만(Devaśarman) 혹은 데악세마(Devakṣema, 提婆說摩)의 『識身論(Vijñānakāya)』, T 1539), 3. 티베트 출전에 의거한 사리뿌뜨라의 『法蘊足論(Dharmaskandha)』, 한역에 의거한 마우드갈리아야나(Maudgalyāyana)의 『法蘊足論(Dharmaskandha)』(T 1537); iv) 마우드갈리아야나의 『施設足論(Prajñaptisāstra)』 (T 1538); 5. 티베트 출전에 의거한 뿌르나(Pūrṇa)의 『界身足論(Dhātukāya)』, 한역 출전에 의거한 Vasumitra의 『界身足論(Dhātukāya)』(T 1540); 6. 티베트 출전에 의거한 마하까우슈틸라(Mahākauṣṭhila)의 『集異門足論(Saṃgītiparyāya)』, 한역 출전에 의거한 사리뿌뜨라의 Saṃgītiparyāya(T 1536). — 발지론의 경우, 설일체유부 아비다르마 관련 일곱 논서가 있다. 최우수 저작은 J. Takakusu의 *On the Abhidharma Literature of the Sarvāstivādin*, Extract of JPTS, 1905이다. 이 저작에는 루이 드 라 발레 푸쟁의 *Introduction to the Kośa*, p. XXIX~XLII가 첨부되었다. — 빨리 아비다르마의 일곱 권의 저술을 비교하려면 Winternitz, *Literature*, II, p. 165~173; Law, *Pāli Literature*, I, p. 336~342; Nyanatiloka, *Guide through the Abhidhamma-Piṭaka*, Colombo, 1938을 볼 것.

222) *Fen pie che tch'ou*, Lokadhātuprabheda, 分別世處分

223) *Leou t'an king*, 樓炭經

224) Maudgalyāyana, 目犍連

225) 중국 전통에 따라 마우드갈리아야나를 『法蘊足論』(T 1537)의 저자로 상정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장의 번역은 이십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26) P'o siu mi, Vasumitra, 婆須蜜

227) Ki pin, Kaśmir, 闍賓

228) 팔 장으로 이루어진 『衆事分阿毘曇論(Prakaraṇapāda)』(T 1541 및 T 1542)과 관련 있다: *Pañcadharmavibhaṅga*, *Jñānavibhaṅga*, *Āyatanavibhaṅga*, *Saptapādārthavibhaṅga*, *Anuśayavibhaṅga*, *Samgrahavibhaṅga*, *Sahasrapariṣicchāvibhaṅga*, *Nirvedavibhaṅga*. Mppś를 신뢰한다면 첫 네 장만이 바수미뜨라의 저작이다.

229) Louen yi che, upadeśācārya, 論議師

230) T'ou tseu, Vātsīputrīya, 犢子

231) *Chou li fou a pi t'an*(Śāriputābhidharma), 『舍利弗阿毘曇論』(*Śāriputrābhidharmaśāstra*, T 1548)은 407년과 408년에 걸쳐 曇摩耶舍(Dharmayaśas, 法稱)에 의해 번역되었다(Bagchi, I, p. 175)

— 한편 루이스 랭카스터(Lewis R. Lancaster)는 이를 法密(Dharmagupta)과의 공역으로 소개한다. 사리뿌뜨라는 제자들 가운데 지혜제일(*mahāpaññānaṃ: Aṅguttara*, I, p. 23)로서 붓다 생전에 이경을 저술했을 수도 있다: 아마도 Mppś는 여기에서 『鞞婆娑』(T 1545, k. 1, p. 1 b 1~3)를 전거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듯하다: “여래의 모든 제자들 사이에 통하는 규율이 하나 있는데, 모든 신성한 법을 증득한 위대한 논사가 둘 있으며, 붓다 생존 시는 사리뿌뜨라요, 붓다 니르바나 후는 『發智論』의 저자 迦多衍尼子(Katyāyanīputra)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Atthasālinī*(tr. P. M. Tin, *Expositor*, I, p. 20~21)에서 사리뿌뜨라가 어느 정도 아비다르마에 통달했는지 배운다: 삼삼삼천에게 아비담마를 설하고 있을 때 붓다는 날마다 Anavatapata 호수에서 목욕하였다. 그리고 휴식 시간 중 사리뿌뜨라와 소통하며 그가 막 가르친 법문의 내용을 그에게 전수했다, 이렇게 아비다르마를 배운 사리뿌뜨라는 그것을 오백 제자들에게 전파했다(*Sāriputtatthero pi Satthārā desitaṃ dhammaṃ āharitvā attano saddhivihārikānaṃ pañcannaṃ bhikkhusatānaṃ desesi*).

빠알리 학파는 아비다르마를 붓다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리뿌뜨라를 통해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리뿌뜨라비다르마(Śāriputrābhidharma)와 빠알리 아비다르마 사이의 형식이나 내용 전체에서 드러난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준다.

루이 드 라 발레 푸쟁(*Introduction to the Kośa*, p. LX~LXII)과 카무라(T. Kamura, *Recherches*

4. 마하까뜨야야나가 붓다 생존 시 붓다의 말을 풀이하여 『곤륜』<sup>232)</sup>(진나라 말로 협장<sup>233)</sup>)을 지어 지금까지 인도 남부에서 사용되고 있다.<sup>234)</sup> 이 모두가 붓다의 설법을 해설하기 위한 것이니, 오계<sup>235)</sup>가 설해지면 다음과 같은 해설이 따른다. “어떤 것은 물질적<sup>236)</sup>이나 나머지는 물질적이지 않다. 어떤 것은 보이지만<sup>237)</sup>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다.<sup>238)</sup> 어떤 것은 대응하지만<sup>239)</sup> 나머지는 대응하지 않으며,<sup>240)</sup> 어떤 것은 순수하지 않으나<sup>241)</sup> 나머지는 순수하다.<sup>242)</sup> 어떤 것은 조건적이며<sup>243)</sup> 나머지 것은 조건적이지 않다.<sup>244)</sup> 어떤 것은 과보가 있고<sup>245)</sup> 나머지 것은 과보가 없으며,<sup>246)</sup> 어떤 것은 선하지만<sup>247)</sup> 나머지 것은 선하지 않고,<sup>248)</sup> 어떤 것은 정해졌으나<sup>249)</sup> 나머지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sup>250)</sup> 이 모든 것을 일러 아비다르마라 한다.

또한 나머지 일곱 잔해<sup>251)</sup>가 있으니<sup>252)</sup>, 결망 집착 잔해,<sup>253)</sup> 진노 잔해<sup>254)</sup>, 존재 집착 잔

---

*sur l'Abhidharma*, Tokyo, 1922)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탐구에 따르면, 사리뿌뜨라비다르마는 설일체유부와 전혀 무관하고, 빠알리 법(특히 ‘分別論(*Vibhaṅga*)’과 ‘人施設論(*Puggalapaññati*)’) 교의와 밀접함을 보여주며, 『鞞婆娑(*Vibhāṣā*)』와 *Kośa*에 발표된 分別論者들의 논의를 지지한다. 이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鞞婆娑』 p. 1과 『俱舍論(*Kośa*)』, I, p. 35의 『사리뿌뜨라비다르마』에 관한 설명, T 1548, k. 3, p. 543의 색계(*rūpadhātu*); *Vibhaṅga*, p. 89와 *Kośa*, I, p. 30의 법계(*dharmadhātu*)에 관한 정의, k. 2, p. 535; 分別論, p. 103과 滅諦(*nirodhasatya*)(k. 4, p. 553)에 관한 정의를 비교만으로 충분하다.

빠알리 학파는 아비담마 논장을 일곱 권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와 거의 구분이 어려운 雪山部(Haimavata)는(W. Geiger, *Mahāvamsa*, p. 278) 다른 분류법을 수용한다(k. 4, p. 553): 1) 有問分別(*saprasānaka*), 2) 無問分別(*aprasānaka*), 3) 相攝(*Samgraha*), 4) 相應(*saṃprayukta*), 5) 處所(*āyatana*). *P'i ni mou king*, T 1463, k. 4, p. 818 a 28~29(tr. Przyluski, *Concile*, p. 179) 참조. 루이 드 라 발레 푸생처럼 이 구분은 사리뿌뜨라비다르마의 첫 세 장과 관련지어 보아야 한다: 1) 有問分別, 2) 無問分別, 3) 相攝相應(*Samgrahasamprayukta*).

Mppś는 “나중에는 독자부 승려들이 사리뿌뜨라비다르마를 암송하였다.”라고 추기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 주장에 근거해서 빠라마르다는 그들의 창시자 밧샤뿌뜨라(Vatsyaputra) 아르하트가 라홀라를 자신의 화상으로 삼았으며, 라홀라는 ‘교의의 특성들 아비다르마(*Abhidharma des Characteristives de la Loi*)’ 혹은 다르마락샤나비다르마(*Dharmalakṣaṇābhidharma*)라 불리는, 아홉 부로 구성된 붓다의 아비다르마를 지은 사리뿌뜨라를 자신의 화상으로 삼았다.”라고 부기한다(*Demiéville, Origine des sectes bouddhiques*, p. 57 참조). 사실 사리뿌뜨라비다르마는 독자부와 정량부의 특징을 이루는 교의인 개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아의 교의에 관해 법칙을 주는 아비다르마 서적은 *San mi ti pou louen*, T 1649가 유일하다.

232) Pi le, *peṭaka*, 昆勒

233) Boite-Collection, box-collection, 篋藏

234) Mahākātyāyana와 그의 *Peṭakopadesa*에 관해서는 위의 p. 150, 주석 234)을 볼 것.

235) les cinq défenses, the five precepts(*sīla*), 五戒

236) matériels, material, *rūpin*, 有色

237) visibles, visible, *sanidarśana*, 可見

238) invisibles, invisible, *anidarhana*, 不可見

239) résistants, resistance, *sapratigha*, 有對

240) pas résistants, non resistance, *apratigha*, 無對

241) impurs, impure, *sāsrava*, 有漏

242) purs, pure, *anāsrava*, 無漏

243) conditionnés, conditioned, *saṃskṛta*, 有為

244) inconditionnés, non-conditioned, *asaṃskṛta*, 無為

245) avec rétribution, with retribution, *vipaka*, 有報

246) sans rétribution, without retribution, 無報

247) bons, good, *kuśala*, 有善

248) mauvais, bad, *akuśala*, 不善

249) définis, defined, *vyākṛta*, 有記

250) non-définis, non-defined, *avyākṛta*, 無記

251) sept résidus, seven tendencies of defilement(*anuśaya*), 七使

해<sup>255</sup>), 교만 잔해,<sup>256</sup> 무지 잔해,<sup>257</sup> 그릇된 견해 잔해,<sup>258</sup> 의혹 잔해<sup>259</sup>)가 그것들이다. 어떤 것이 욕계<sup>260</sup>의 번뇌이며, 어떤 것이 색계의 번뇌<sup>261</sup>이며, 어떤 것이 무색계<sup>262</sup>의 번뇌인가. 어떤 것은 견제<sup>263</sup>로 끊어지며 나머지 것은 사유<sup>264</sup>로 끊어지고, 어떤 것은 고통 보기<sup>265</sup>로 끊어지며 나머지 것은 고통의 기원 보기<sup>266</sup>로 끊어지고, 고통 보기 멈춤<sup>267</sup>)으로 끊어지며, 도를 봄<sup>268</sup>)으로 끊어진다. 어떤 것은 완전한 잔해이며<sup>269</sup>, 나머지는 불완전한 잔해<sup>270</sup>)이다.

열 가지 지혜<sup>271</sup>)는 다음과 같다.,<sup>272</sup>) 1. 법칙 지혜,<sup>273</sup>) 2. 상응하는 지혜,<sup>274</sup>) 3. 세간 지혜,<sup>275</sup>) 4. 타인 마음을 아는 지혜,<sup>276</sup>) 5. 고통을 아는 지혜,<sup>277</sup>) 6. 고통의 기원을 아는 지혜,<sup>278</sup>) 7. 고통의 소멸을 아는 지혜,<sup>279</sup>) 8. 도를 아는 지혜,<sup>280</sup>) 9. [오염의] 소멸을 아는 지혜,<sup>281</sup>) 10. 태어나지 않음을 아는 지혜,<sup>282</sup>).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순수하지 않은 것<sup>283</sup>)이지만

252) 동일하면서도 항목의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른 경전들. *Digha*, III, p. 254, 282; *Samyutta*, V, p. 60; *Aṅguttara*, IV, p. 9; *Vibhaṅga*, p. 340, 383; *Kathāvatthu* II, p. 405 sq.; *Kośa*, V, p. 3; *Tsa a han*, T 99 (no. 490), k. 18, p. 127 a 28.

253) anuśaya d'attachement au plaisir, anuśaya of attachment to pleasure(kāmarāga), 欲染使

254) anuśaya d'hostilité, anuśaya of hostility(pratigha) 瞋恚使

255) anuśaya d'attachement à l'existence, anuśaya of attachment to existence(*bhāvarāga*), 有愛使

256) anuśaya d'orgueil, anuśaya of pride(*māna*), 憍慢使

257) anuśaya d'ignorance, anuśaya of ignorance(*avidyā*), 無明使

258) anuśaya de vue fausse, anuśaya of wrong view(*dṛṣṭi*), 見使

259) anuśaya de doute, anuśaya of doubt(*vicikitsā* or *vimati*), 疑使

260) le monde du désir, the desire realm, *kāmadhātu*, 欲界

261) le monde matériel, the form realm, *rūpadhātu*, 色界

262) le monde immatériel, the formless realm, *ārūpyadhātu*, 無色界

263) la vue des vérités, seeing the truths, *satyadarśanaheya*, 見諦

264) la méditation, the meditation, *bhāvanāheya*, 思惟

265) la vision de la douleur, the seeing of suffering, *duḥkhadarśanaheya*, 見苦

266) la vision de l'origine, the seeing the origin [of suffering], *samudayadarśanaheya*, 見集

267) la vision de la destruction [de la douleur], the seeing the cessation [of suffering], *nirodhadarśanaheya*, 見盡

268) la vision du chemin, the seeing the Path, *pratipaddarśanaheya*, 見道

269) *anusaya* complets, complete *anuśayas*, 遍使

270) *anusaya* incomplets, incomplete *anuśayas*, 不遍使

271) Les dix savoirs, ten knowledges(*jñāna*), 十智

272) 열 지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 *Prakaraṇapāda*, T 1541, k. 1, p. 628 b~c; T 1542, k. 1, p.693 c ~ 694 a; *Abhidharmāmṛtarasāsāstra*, T 1553, k. 2, p. 974(tr. Hobogirin, Chi, p. 291); *Kośa*, VII, p. 11; *Mahāvīyutpatti*, n° 12341243. — 빠알리 출전들: *Digha*, III, p. 226~227; *Samyutta*, II, p. 57; *Vibhaṅga*, p. 328.

273) le savoir du Dharma, the knowledge of dharma, *dharmajñāna*, 法智

274) le savoir de correspondance, the subsequent knowledge, *anvayajñāna*, 比智

275) le savoir mondain, worldly knowledge, *lokaśamvṛtijñāna*, 世智

276) le savoir de la pensée d'autrui, the knowledge of the mind of another, *paracittajñāna*, 他心智

277) le savoir de la douleur, the knowledge of suffering, *duḥkajñāna*, 苦智

278) le savoir de son origine, the knowledge of its origin, *samudayajñāna*, 集智

279) le savoir de sa destruction, the knowledge of its cessation, *nirodhajñāna*, 滅智

280) le savoir du chemin, the knowledge of the Path, *mārgajñāna*, 道智

281) le savoir de la destruction, the knowledge of the cessation [of the defilements], *kṣayajñāna*, 盡智

282) le savoir de la non-renaissance, the knowledge of no further rebirths, *anutpādayajñāna*, 無生智

283) impurs, impure, *sāsrava*, 有漏

나머지는 순수한 것<sup>284</sup>)이며, 어떤 것은 조건적<sup>285</sup>)인 것이지만 나머지 것은 무조건적인<sup>286</sup>) 것이다. 그 어떤 것은 순수하지 않은 원인<sup>287</sup>)을 지니고 있지만 나머지는 순수한 원인<sup>288</sup>)을 지닌다. 어떤 것은 조건적 원인을 지니고, 나머지 것은 비조건적 원인을 지닌다. 어떤 것은 욕계<sup>289</sup>)에 속하는 원인을 지니며, 이외의 다른 것은 색계<sup>290</sup>)에 속하는 원인을 지니고, 어떤 것은 무색계<sup>291</sup>)에 속하는 원인을 지니고, 어떤 것은 아무 세계<sup>292</sup>)에도 속하지 않는 원인을 지닌다. 어떤 이들은 장애 없는 도<sup>293</sup>)에서 닦으며, 다른 이들은 해탈도<sup>294</sup>)에서 닦는다. 사과<sup>295</sup>)를 닦으면 얻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잃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법을 분석<sup>296</sup>)하는 것을 아비다르마라 한다.

세 가지 아비다르마가 있다. 첫째, 아비다르마의 몸과 뜻으로, 줄여 말하니 삼십이만 자<sup>297</sup>)이다. 둘째, 육분이니 줄여 말해 삼십이만 자요, 셋째, 삐따까로서 줄여 말하니 삼십이만 자라.

이렇게 “이와 같이, 나에게는, 들렸다, 한 때”의 전반적인 의미를 마무리해본다.

284) purs, pure, *anāsrava*, 無漏

285) conditionnés, conditioned, *samskr̥ta*, 有爲

286) inconditionnés, unconditioned, *asamskr̥ta*, 無爲

287) des causes *sāsrava*, *sāsrava* causes, 有漏緣

288) des causes *anāsrava*, *anāsrava* causes, 無漏緣

289) monde du désir, desire realm, *kāmadhātu*, 欲界

290) monde matériel, form realm, *rūpadhātu*, 色界

291) monde immatériel, the formless realm, *ārūpyadhātu*, 無色界

292) aucun monde, no realm, *anavacara*, 不繫緣

293) le chemin sans obstacle, uninterrupted path, *ānantaryamārga*, 無礙道

294) le chemin de la délivrance the path of liberation, *vimuktimārga*, 解脫道

295) les quatre fruits, four fruits(*phala*), 四果

296) analyser, anayze, *vibhajana*, 分別

297) mots, words, 言